

SUPREME MASTER CHING HAI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89호



♣ 소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간 품성과 숭고한 품성을 계발하자

♣ 사랑으로 하나 된 세상

*사랑의 물방울이 모여
떠돌이 개들을 구해 내다

♣ 황금시대의 생활 방식

*마천루 농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농경법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http://www.SupremeMasterTV.com>

주 목 할 뉴스 - 보 다 나 은 세 상 을 위 한 긍 정 적 인 소 식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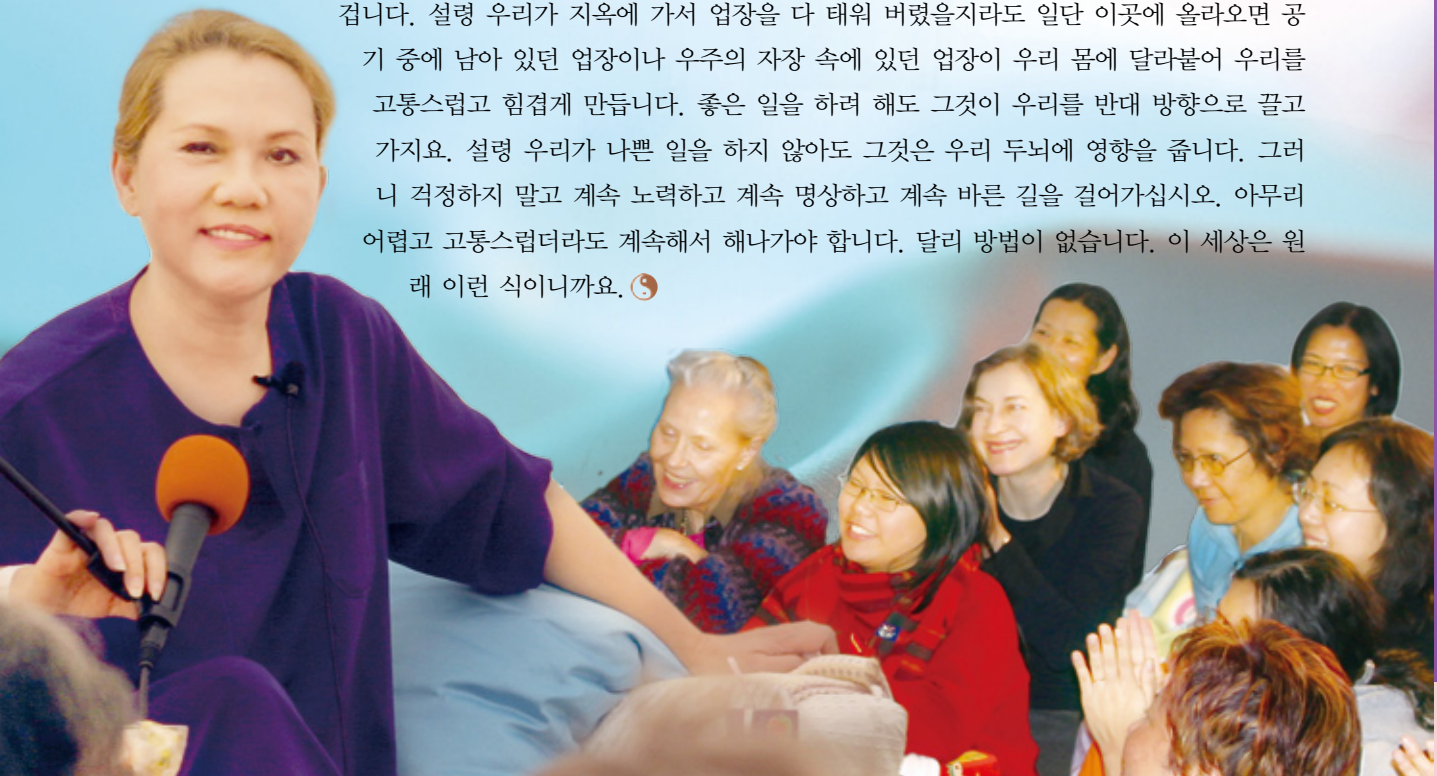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 2007. 5. 27.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 (원문 중국어)

이곳에 내려오면 모든 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곳에 내려와서도 모든 걸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안다면 뭐하러 나나 다른 스승이 내려오겠어요? 이 세상에 내려오면 그 즉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할 뿐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린 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열심히 분투해 명상하고 수행하고 자신의 도덕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라갈 수 있고, 또 우리의 근원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수행해야만 합니다.

석가모니불을 보십시오. 그는 6년간 고행을 해야 했고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온 나라도 버리고, 500 명의 부인과 자식도 버려야 했지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석가모니불은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 자식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고행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한 탓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자신의 원래 등급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그는 도솔천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전에 그렇게 적혀 있지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수행한 끝에 겨우 자신의 본래면목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힘겹게 고투하더라도 그것이 꼭 여러분 잘못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생의 업장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지옥에 가서 업장을 다 태워 버렸을지라도 일단 이곳에 올라오면 공기 중에 남아 있던 업장이나 우주의 자장 속에 있던 업장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겹게 만듭니다. 좋은 일을 하려 해도 그것이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지요. 설령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 두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명상하고 계속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이런 식이니까요. ☺





출판일자: 황금시대 4년(2008년) 4월 19일
 설립년도: 1990년 4월 1일
 발행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Hsieh Hsin-lin
 인쇄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인터넷 상에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는 뜻인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들이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영성 고양과 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합니다.

- 2 스승님 말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 4 다채로운 이벤트
미국/ 캐나다/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일본/ 인도네시아/ 포모사/ 대한민국
- 19 관음 웹사이트
- 20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각 매체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후원
- 21 매체 보도
독일 인터넷 잡지 『라디오보헤(Radiowoche)』
- 23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중국 녹색논/
어느 세차장 사장님의 문제 청소년 사랑/ 어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다
- 27/42 감사 편지
푸에르토리코 빌라 지사의 감사 편지/
스승님의 아세안 워크숍 후원에 대한 감사 편지/
투게가라오 대학교에 보낸 사랑의 선물
- 28 빛나는 세계 영웅상
타즈-어느 개의 헌신적인 사랑
- 29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긍정적인 소식
호주의 야생동물 회랑 지대
- 29 주요 연락처
- 30 황금시대의 생활 방식
마천루 농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농경법
- 31/62/64 스승님의 농담
손해도 학습의 한 방법/ 내 차는 풀서비스만 받아요!
- 32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간 품성과 숭고한 품성을 계발하자
- 39 시
스승님을 그리며/ 스승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40 특별 보도
다양성 속의 통일-아세안 40주년 기념 경축 행사
- 43 사제지간의 편지
스승님께서 재난과 곤경에서 나를 보호하시다
- 44 동물의 감성 세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과 고통을 느낀다/
강을 건너다니며 강아지를 키운 용감한 어미 개/
용감무쌍한 마음을 지닌 작은 영웅/
임종하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고양이의 사랑/
거위와 소통하는 마틴 호프/ 소리로 소통하는 고래
- 49 사랑으로 하나 된 세상
사랑의 물방울이 모여 떠돌이 개들을 구해 내다
- 52 사랑의 실천
방글라데시/ 페루/ 중국/ 인도네시아
- 65 전세계 연락처
- 69 양서 입문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이 인류에게 주는 일깨움
- 71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DVD

동물에 대한 깊은 자비심과 아울러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의 마음에서 스승님은 직접 '대안적인 삶'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단을 디자인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계에 제시하셨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세계적인 질병 위기를 극복하고 동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채식 생활을 선택하고 살생을 멈추라고 일깨워 준다. 모든 동수들에게 세계 곳곳의 형제자매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라고 하신 스승님의 당부에 따라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스위트 레몬 비스트로 맛있는 음식, 영성각성

오리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오리건] 스승님께서 줄곧 대중들이 요리하기 간편하고 쉬운 건강 채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고 계시는 점에 영감을 받아 오리건 주 포틀랜드 동수들은 최근 '스위트 레몬 채식 비스트로(Sweet Lemon Vegetarian Bistro)'라는 이름의 패스트푸드 채식 식당을 열었다. 이 식당은 여태껏 채식 식당이 없었던 새로운 고급 쇼핑 구역에 자리를 잡았다.

식당을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들리셔서 이 지역에 채식 음식을 소개해 준 데 대해 고마워했다. 우리는 고객들이 한층 더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당 내부 색을 밝고 환한 색조로 신경 써서 골랐다. 요리 이름도 '해피 요기 밥', '성스러운 수프', '지혜 주머니', '귀한 국수' 등으로 특별히 신경 썼다.



식당을 개점한 첫 달은 종종 손님들로 가득 붐볐다. 이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내부에 전시된 스승님의 아름다운 작품들에 매료되었다고 했으며, 가톨릭 수녀 세 사람은 천상에서 영감을 받은 스승님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스승님의 부채와 만세등, 다양한 출판물들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많은 고객들이 “스위트 레몬의 맛있는 음식과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여러 번 들렀어요.”라고 말했다. 이 밖에 손님들은 평면 TV를 통해 계속해서 방영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우리 식당의 독특한 실내 장식과 감칠맛 나는 건강식품은 큰 호평을 받았다. ‘스위트 레몬’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스승님의 사랑을 누리고 가득 받아 가길 바란다. ☺

‘맛있는 음식’

게시자: casckm, 2007년 8월 25일 토요일

리뷰: ‘행복한 소의 채식 가이드(Happy Cow’s Vegetarian Guide)’를 통해 이 식당을 발견하게 됐는데 음식이 정말 맛있고 모양도 예뻐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주인들은 친절합니다. 메뉴에 신경을 많이 썼더군요.

‘스위트 레몬’ 웹사이트:

<http://www.sweetlemonveggiebistro.com/home.html>

즐겁고 축복으로 가득한 퍼레이드

보스턴 뉴스그룹 (원문 영어)

[매사추세츠 보스턴] 뉴버리포트(Newburyport)의 ‘미국인 귀향절(Yankee Homecoming)’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이 귀향 축제는 해마다 국내외의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은다.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5일, 매사추세츠·로드아일랜드·뉴햄프셔·코네티컷의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을 가지고 뉴버리포트에 가서 이 유명한 연중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시내에 가서 전단을 배부했다. 젊은 동수들 모임인 ‘보스턴 키즈(Boston Kids)’는 이번 활동에서 다시 한 번 큰 힘을 발휘했다. 사람들



은 기쁘고 신실하고 예의 바르게 전단을 받았으며, 몇몇 젊은이들은 빙 둘러서서 전단을 받아 읽은 후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가 그들 곁을 두 번째 지나칠 때는 “전 채식을 좋아해요.”, “두부, 좋지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

퍼레이드 시간이 되자 우리 팀은 우리와 함께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 친구를 비롯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상징하는 관음가족 깃발을 앞장세웠고 다음으로 ‘대안적인 삶’ 현수막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대안적인 삶’ 포스터와 스승님 사진이 실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포스터는 ‘보스턴 키즈’



가 들었다. 3세부터 70세까지의 동수들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우리 팀은 각자 ‘대안적인 삶’ 티셔츠를 입고 많은 포스터를 높이 들었다. 군중들은 우리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손을 흔들며 격려해 주었다. 열광적인 관중은 큰 소리로 “좋은 메시지”, “대안적인 삶”, “좋은 단체”, “니 하오(중국어로 ‘안녕하세요’란 뜻)” 등을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전단을 읽었고 읽은 후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심지어 한 여성은 돌진해 와선 전단을 움켜쥐고 이렇게 말했다. “나도 받고 싶은데 아무도 안 주더군요.”

이번 활동은 이제까지 했던 전단 배포 활동 중 가장 열렬한 반응을 얻었다. 통틀어 6천 장의 전단이 배포되었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스승님의 사진을 통해 축복을 받았다. 이 행사 동안 우리는 스승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한편 서로간의 내적 연결, 그리고 자신과 스승님의 내적 연결을 강화시키는 큰 가족 모임에 온 듯했다. ☺


동남아시아 물의 축제에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개국 1주년을 축하하다

보스턴 뉴스그룹 (원문 영어)

[매사추세츠 로웰] 매년 8월 셋째 토요일이면 미국·캐나다·프랑스·호주에서 온 수천 명이 대(大) 로웰(Greater Lowell)에서 캄보디아·라오스·태국의 오랜 전통을 경축한다.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18일, 보스턴 센터의

우리 협회 회원들은 제11회 동남아시아 물의 축제(Southeast Asian Water Festival)에 참가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개국 1주년을 경축했다.

지역 동수들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 이 일에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우리 부스를 방문한 손님들은 전단을 받고 채식 요리를 즐겼으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칭하이 무상사, 채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했다. 또한 우리는 약 3천 부의 전단도 배포했다. 우리 텔레비전 기자들은 이 축제의 총감독인 메흐메드 알리(Mehmed Ali) 씨와 두 명의 주요 책임자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평화를 위한 최선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차이점을 존중하며 서로 도움으로써 가능하지요.”

우리는 많은 풍선과 다채로운 의상, 풍성하고 신선한 과일로 장식한 대형 케이크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개국 1주년을 축하했다. 더할 수 없이 완벽한 하루였다. 주최측은 내년에도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기쁘게 초청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홍보하는 새로운 방식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오하이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열성적인 많은 동수들은 광고판이나 눈에 잘 띄는 지점에 광고하는 일을 생각해 봤지만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했다.

미국 테네시에 사는 한 사저는 아주 멋진 생각을 떠올렸다. 값비싼 광고 대신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몇 백 달러를 들여 지역 인쇄소를 통해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현수막 형식의 간판을 만들었다. 그녀의 사업장이 관광 지구에서도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 있던 터라 간판이 걸리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목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왔다. 이렇게 해서

사저는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발상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은 소매업을 하는 다른 동수들에게 속속 전해졌다. 플로리다의 루 씨 가족은 자신들의 세탁소 창문 위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를 걸고선 매우 기뻐했다. 다채로운 대형 광고물은 가게의 외관을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선도 끌었다. 다른 주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많은 동수들도 이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광고가 설치된 곳은 다음과 같다. 플로리다 주의 포트마이어스(Fort Myers)·스프링힐(Spring Hill)·탬파(Tampa)·클리어워터(Clearwater)·



세인트피터즈버그(Saint Petersburg)·올랜도(Orlando), 조지아 주의 맥도너(McDonough), 오하이오 주의 신시내티(Cincinnati)·리마(Lima), 켄터키 주의 루이빌(Louisville), 인디애나 주, 뉴욕 주이다.

이들 사업주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 긍정적인 정신을 확산시켜 된 것에 매우 뿌듯해하고 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소식에 귀 기울이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전하는 사랑과 관심, 선의를 나눈다면 세상은 분명 계속해서 고양될 것이다! ☺


플로리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홍보 활동

올랜도 뉴스그룹 (원문 영어)

【플로리다 올랜도】전세계적인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플로리다 동수들은 최근 『올랜도 센티넬(The Orlando Sentinel)』, 『탬파 트리뷴(The Tampa Tribune)』, 『잭슨빌 타임스 유니온(The Jacksonville Times Union)』, 『탤라해시 데모크라트(The Tallahassee Democrat)』, 『마이애미 헤럴드(The Miami Herald, 남미 여러 나라에서 발행되는 스페인어판과 국제판 포함)』 등을 비롯한 주내 주요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플로리다 센터는 지역 공공 케이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홍보해 오고 있으며, 많은 동수들이 차량에 자석판 홍보물을 붙이고 다니는 형식으로 '수프림 마



스터 텔레비전'의 좋은 소식을 길거리에 전하고 있다. 눈에 잘 띄는 화려한 색깔의 이 홍보물은 승용차·트럭·미니 밴 등의 옆쪽과 뒤쪽 패널에 쉽게 붙일 수 있어 동수들은 단체명상에 갈 때나 쇼핑을 갈 때, 심지어 출근 길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해 알릴 수 있다. 

워싱턴 D.C. 아시아 축제

버지니아 뉴스그룹 (원문 영어)


[워싱턴 D.C.]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21일 버지니아 센터 회원들은 워싱턴 D.C. 아시아 축제(Washington D.C. Asian Festival)에 참가했다. 워싱턴 D.C. 전 지역에서 1만 2천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시아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경험했으며, 태국·중국·한국·일본·포모사·필리핀·캄보디아·어울락 대표들이 참가해 풍요로운 자국의 문화를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아시아 전통 문화에서는 동물을 신성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다라는 사실을 축제 참가자들에게 보여 주고자 했다. 우리 음식이 채식 단백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다! 그들이 앞으로 채식 음식을 어디에서 구입해야 하는지를 문의해서 지역 채식 정보가 담긴 소책자도 함께 나눠 주었다.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건강에 좋고 맛도 일품인 데다 아시아 특유의 풍미를 지닌 최고의 채식 요리를 한껏 즐길 수 있었다!



우리는 많은 개들이 우리 부스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 기쁘고도 놀라왔다. 그중 한 마리는 스승님 책을 놓아둔 탁자 밑에 줄곧 앉아 있으려 했다. 그 바람에 주인이 개를 달래서 데려 가는 데 꽤나 애를 먹었다! 그 개는 환영받는 손님이었으며,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축제는 대성공이었다! 행사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건

강에 이롭고 마음을 일깨우는 음식을 맛보았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한 정보도 얻어 갔다! 이번 축제가 성황리에 잘 진행된 걸 계기로 버지니아 센터는 가까운 미래에 다른 지역의 축제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스승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로스앤젤레스]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21일과 22일, 로스앤젤레스 동수들은 로스앤젤레스 웨스틴 호텔(Westin Hotel)에서 열린 '2007 동물 권리 전국 대회(The Animal Rights 2007 National Conference)'에 참가했다. 동수들은 이 기회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 '대안적인 삶' 전단 과 쇼핑백을 배포하는 한편 건강 채식 음식을 함께 나눴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대안적인 삶' 대형 포스터에 이끌려 온 많은 방문자들은 누군가가 대중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데 기쁨을 표했다. 한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단체는 이 행



사에 참으로 고차원적인 자비와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도 스승님의 가르침과 명상 수행에 관심을 보였으며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많은 방문객들은 맛있는 건강 채식 요리도 즐겼다. 그중 한 사람은 "여태껏 제가 먹은 채식 요리 중에 최고예요!"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음식이 아주 훌륭하고 깨끗하군요. 어쩐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이더라니!" 하고 말했다.

스승님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얼굴은 한층 빛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로스앤젤레스 센터의 사형사저들은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스승님의 축복과 배려에 깊이 감사했다. ☺

캐나다

스승님의 특별 보너스와 사랑의 선물

토론토 뉴스그룹 (원문 영어)

[토론토] 공항 측과의 여러 차례 협상 끝에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31일부터 4주 동안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Toronto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제3터미널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포스터를 전시하게 되었



다. 광고판은 6×4 크기로 출국 터미널과 입국 터미널에 한 곳씩 전시된다.

입국 터미널에 붙은 두 번째 포스터는 사실상 보너스로 얻은 것이다. 광고 배치를 책임 맡은 업무 주임에 따르면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인해 이 보너스가 주어졌다고 한다. 첫째, 우리가 비영리 단체라는 점. 둘째, 우리가 이 광고를 통해 어떠한 영리도 취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우리가 소개하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긍정적인 프로그램만 방송하는 채널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공

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 대체로 해마다 성수기에는 공항 내에 광고하기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겐 보너스로 한 공간이 추가로 주어진 셈이다.

제3터미널은 해마다 세계 각처에서 약 1,200만 명이 거처한다. 이제 두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광고판에 있는 스승님의 사진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대해 알게 될 기회도 갖게 되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의 관대한 성원에 감사하고 여행객들을 위해 이렇게 특별히 안내해 주신 스승님께도 감사드린다! ☺



슬로베니아

무한한 사랑에 축복받은 슬로베니아 재소자들

류블라나 뉴스그룹 (원문 슬로베니아어)

[류블라나]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16일, 차별 없고 끝없는 신의 사랑 속에 슬로베니아 동수들과 이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남자 교도소의 재소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동수들은 ‘환상은 실재의 반영이다’라는 제목의 강연 테이프를 통해 스승님의 지혜를 나누었다. 이 강연에서 스승님께서서는 이 세상에는 사실 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 비디오를 보고 난 뒤에는 질의응답과 방법론 소개, 짧은 명상 시간이 이어졌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던 탓에 모든 동수들은 이 짧은 만남 동안 평소보다 강렬한 스승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재소자들은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었기에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이 자비의 길에서 항상 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도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하면서 우리에게 가까운 장래에 다시 한 번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달라고 부탁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 어린 안내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머지않은 시기에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

불가리아

불가리아에서 스승님의 메시지를 나누다

플로브디브 뉴스그룹 (원문 불가리아어)

[플로브디브] 불가리아 플로브디브(Plovdiv) 동수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홍보해 왔다. 그들은 직접 전단을 나눠 주는 한편 주간지 『인포(Info)』를 비롯해 불가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문인 『24시간(24Chasa)』과 『노동(Troud)』지에 광고를 실었고 5월에는 소피아(Sofia) 시내의 3개 지하철 객차에도 광고를 실었다.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플로브디브 동수들은 발칸 요가 대회(Balkan Yoga Championships)라는 좋은 기회를 이용해 대중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이 행사에서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전단, 견본책자를 나눠 주고, 스승님 사진과 DVD,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 모자, 지구 가죽 깃발, 서적들도 전시했다. 유명한 안티크 씨어터(Antique Theater)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불가리아와 외국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은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많은 이들이 스승님의 사진만 보고도 스승님에 대해 궁금해했다. 11, 12세쯤 되는 한 여자아이는 자발적으로 스승님의 작은 사진 쪽으로 다가가 망설이지 않고 두 장을 고르기도 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채식주의와 자비에 대해 동수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마음을 고양시키는 현장 분위기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젖었던 멋진 행사였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에너지가 있는 곳이면 이해와 평화, 조화로움이 함께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



일본

도쿄 의료 박람회에서 신의 성스러운 메시지를 나누다

도쿄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도쿄]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28일과 29일에 도쿄 센터는 처음으로 도쿄 국제 전시장에서 열린 일본에서 가장 큰 상업 엑스포인 '의료 박람회(Healing Fair)'에 참가했다. 이번 엑스포는 미학(美學)·건강·치료·영성 등 4개 방면의 주제를 다루었다.

우리는 스승님의 그림과 출판물을 전시하는 한편 스승님 소개 비디오와 스승님의 강연 DVD,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상영해 전시장 전체가 스승님의 사랑과 고결한 분위기에 감싸이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대안적인 삶'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우리 센터의 추후 활동 계획을 소개하는 전단도 나눠 주었다. 또 운세 쪽지 위에 스승님의 감로법을 인쇄해 방문객들에게 하나씩 뽑아 보도록 권했다. 운세 쪽지의 내용을 읽고 난 많은 방문객들이 그 감로법어가 자신의 현재 상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심스레 지갑 속에 쪽지를 끼워 넣었다. 우리의 이번 엑스포 참여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과 채식 생활 양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길 바란다. 스승님의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도쿄 센터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행사에 적극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



인도네시아

멋진 깜짝 소식-스승님이 신문에 나다!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욕야카르타] 최근 한 사형은 잘 알려진 주간 신문 중 하나인 『망구 파기(Minggu Pagi)』에 스승님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연재 기사로 실린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신문은 주로 욕야카르타와 중부 자바, 자카르타에서 유통된다. 15면에 이르는 연재 기사의 제목은 '칭하이 스승: 살아 있는 여성 부처'이며, 스승님의 탄생부터 히말라야에서 깨닫기까지의 과정, 공개 강연과 입문, 많은 정부 관료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수상 내역 등 스승님의 생애

를 다룬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사는 『밍구 파기』의 선임 기자인 니에스비 사바킹킨(Niesby Sabakingkin) 씨가 작성한 것이었다. 그는 스승님이 여성 신분의 영적 스승이지만 범상치 않은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졌다. 본인 역시 수행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는 우리에게 스승님의 삶과 관음법문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얻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쓴 글이 정확한지 의견을 부탁한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스승님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을 알 기회를 얻었고 그로써 그들 가슴속에 사랑의 영성 씨앗이 뿌러지게 되었다. 이 놀라운 안배에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에 대해 멋진 기사를 보도한 니에스비 사바킹킨 씨와 『밍구 파기』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

포모사

청소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한 연극 체험 캠프

타오위안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오위안]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22일과 29일, 두 차례의 일요일에 타오위안 센터 어린이집은 ‘청소년 창의성 연극 체험 캠프’를 개최해 청소년 성인(聖人)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우정과 협동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행사의 특색은 청소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연극 놀이’를 통해서 단체의 협동정신을 배우고 자신감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었다. 상황극 연기 체험은 그들이 몸과 마음, 정신 속에 내재된 잠재능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들간의 행사가 끝났을 때, 모든 청소년 참가자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고마워했다. 부모들 역시 어린 동수에 대한 스승님의 관심에 감사드렸으며, 청소년 성인들이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개최해 준 센터 측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

어린이를 위한 신나는 여름 캠프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13일과 14일, 타오위안 센터는 ‘신나는 여름-어린이를 위한 여름 캠프’ 행사를 진행했다. 이 활동적인 행사에서는 춤, 판토마임, 그리기 놀이, 만담, 스승님의 농담 감상, 영어 노래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 활동은 교외에서 하이킹을 하며 자연을 즐기는 것이었다. ‘어린이를 위한 신나는 여름 캠프’에 참가한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즐겁게 어울릴 멋진 기회를 주신 신의 사랑과 축복에 깊이 감사했다. ☺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즐거운 여름 캠프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이베이]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28일과 29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베이 센터는 근교에 있는 썌샤(三峽)에서 1박 2일간의 ‘작은 천사와 부모를 위한 사랑의 바다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 65세의 할아버지부터 5세 어린이까지 약 80명이 이 행사에 참가했다.



첫째 날에는 안내원의 지도에 따른 교내 식물 탐구 여행, 장애물 경주, 체력 대회, 캠프 파이어가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만월 산림 휴양지에 가서 시원하고 상쾌한 산림욕을 즐기고 대자연의 경이를 탐사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의 여름 캠프 동안 심신과 영혼을 정화하는 한편 온화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상호 모임과 신의 충만한 은총을 한껏 누렸다. ☺



대한민국

부산의 초등학교에 채식 바람이 불다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부산]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7일, 부산 센터 동수들이 준비한 채식 요리 강습을 받기 위해 많은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성천 초등학교 도서관에 모였다.

행사는 먼저 고등학교 교사인 변 사형의 ‘아름다운 채식’이란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채식에 관한 많은 뉴스 보도 및 텔레비전 방송 자료 등을 프레젠테이션에 포함시켜 청중에게 채식의 이로움을 설명했다.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주의 깊게 강연을 듣고 그 관련 자료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밥상에 오르는 음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강연이 끝난 후 부산 센터 사저들이 모든 손님들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채식 요리를 대접했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은 채식 음식이 육식과 비교해 맛과 영양 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녀들이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고선 요리법을 묻거나 어디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지 묻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조 사저가 ‘채식 양념 치킨’ 요리 강습을 실시했다.

학부모들은 채식에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동수들에게 보다 많은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행사를 열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채식 홍보 자료 DVD를 본 한 어린이는 “앞으로 엄마한테 채식 요리만 해 달라고 할 거예요.” 하고 말했다. 동수들은 이번 활동의 성공을 계기로 큰 힘을 얻었으며 부산 각급 학교에 채식 홍보를 확산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



한국에서 황금빛 신의 사랑을 나누다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버스 광고

[대구] 대구 동수들은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20일부터 2개 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포스터를 부착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버스 노선들은 대학가



를 비롯해 대구에서 가장 큰 시장과 중심지를 다니고 있어, 이 버스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긍정적인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길 바란다.

[부산] 2007년 6월부터 부산 노포동의 동부고속버스터미널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광고가 설치되었다. 2x1.4미터 크기의 이 광고판은 조명이 들어와 밤에도 많은 버스 터미널 이용객들의 이목을 끈다.



금연 행사에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부채를 나눠 주다

[대구]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10일, 대구 동수들은 대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건강 금연 축제’에 참석했다. 수성구 보건소의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는 대중에게 흡연의 해악을 알리는 한편 대중 건강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동수들이 나눠 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홍보용 부채는 대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축제에 참가한 모든 이들이 우리 부채를 든 듯했다! 이날 대구 동수들은 행사 참가자들이





보여 준 긍정적인 반응에 큰 힘을 얻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신나는 어린이 여름 캠프



영, 불꽃놀이, 수영 같은 오락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꾸며졌다. 이틀간의 캠프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의 싱그러움을 맞볼 수 있는 멋진 기회였다.

[청도]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28일과 29일, 한국 동수들은 경북 청도에 있는 한 동수의 집에서 어린이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밥 만들기, 영화 감상, 친환경 수

세미 뜨개질, 달 표면

관찰하기뿐만아니라 야



한국에 싹트는 채식 식당



[용인]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25일, 한국 최초의 채식 식당 체인점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베지월드(VegeWorld)'는 앞서 4월 22일 서울에 생긴 '오세계향'의 체인점이다. '베지월드'는 좌석 70석을 갖추고 있으며 손님들은 PDP TV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 식당의 주인과 요리사들은 모두 방편법을 수행하고 있고,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전주]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3일, 방편법 수행자가 운영하는 뷔페식 채식 식당 ‘폴꽃 세상’이 전주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맛있기로 유명한 이 식당은 건물을 확장해 2층 건물에 250석을 갖추고 50대가 들어가는 주차장도 확보했다. 식당 주인과 아들은 오랫동안 채식을 해왔는데 특히 아들은 뛰어난 운동선수로서 건강한 채식주의자의 멋진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백련 축제’에서 좋은 소식을 퍼뜨리다

[광주] 8월 4일, 광주 동수들은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무안 백련 축제’를 찾아갔다. 백련지는 3만 3천 평방미터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연꽃 연못이다.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연꽃을 감상하려고 많은 사람이 이 축제를 찾았다. 이날 광주 동수들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부채를 나눠 주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다. 날씨가 더웠던 탓에 다들 부채를 달라고 요청했고 부채에 실린 내용을 열심히 읽었다. 예로부터 연꽃은 진리를 상징해 왔다. 연꽃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통해 진짜 진리를 접하길 바란다.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받고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http://SupremeMasterTV.com>

각 매체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후원

유 럽과 북미에서 방송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개국 1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완전히 긍정적인 프로그램만 방송하는 이 방송국은 더욱더 많은 매체들이 전세계에 이런 소식을 전하는 데 참여하고 있음을 공표했다. 북아메리카부터 아시아와 호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청자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출판되는 신문과 잡지들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함께 보다 고귀한 삶을 권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들은 아낌없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간행물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그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광고해 주었다. 많은 매체들이 연속해서 몇 호에 걸쳐 광고를 실어 주었고, 심지어 일부는 무료로 번역까지 해주었다.

국가	신문/ 잡지	언어
호주	『자연 건강과 채식 생활(Natural Health and Vegetarian Life)』 (계간지)	영어
아르메니아	『A ZG 뉴스(A ZG News)』 인터넷판	아르메니아어
캐나다	『안낭(Anh Nang)』 (주간지)	어울락어
캐나다	『도이모이(Thoi Moi)』 (주간지)	어울락어
포모사	『건강세계(健康世界)』 (잡지)	중국어
독일	인터넷 잡지 『라디오보헤(Radiowoche)』	독일어
독일	인터넷 잡지 『메디엔보테(Medienbote)』	독일어
인도네시아	『밍구 파기(MINGGU PAGI)』 신문	인도네시아어
뉴질랜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Business to Business)』 (월간지)	영어
태국	『마치촌 데일리(Matichon Daily)』	태국어
통가	『통가 크로니클(Tonga Chronicle)』 (주간지)	통가어
미국	『두오웨이시보(多維時報)』 (주간지)	중국어
미국	『싱타오일보(星島日報)』	중국어
미국	『더 차이나 프레스(The China Press)』	중국어
미국	『세계일보(世界日報)』	중국어

이 외에도 겸손한 요청에 따라 이 목록에 올리지 않은 많은 매체들이 더 있다!

새 바람을 일으키는 이 긍정적인 매체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 행성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소식을 함께 나누는 이들 간행물의 노력이 모든 존재들에게 더욱 큰 평화와 사랑, 기쁨을 가져다줄 것이라 확신한다. 다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우리의 전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천국의 축복이 이 고귀한 매체들과 함께 하길 기원한다.



독일 인터넷 잡지 『라디오보헤(Radiowoche)』

2007년 7월 20일 (원문 독일어)
기사: 슈테판 피셔(Stephan Fischer)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제 동경 19.2도의 아스트라 위성을 통해 시청 가능

국제적 텔레비전 채널인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동경 19.2도의 아스트라 1(Astra 1) 위성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신호는 무료인 데다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 매일 <http://suprememastertv.com>을 통해 프로그램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비디오 파일도 제공하므로 선택해 볼 수 있다. 유럽의 약 1억 7백만 가구가 아스트라 위성의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다. 기존의 핫버드 6(Hotbird 6)를 통해서도 계속 시청할 수 있으므로 이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유럽의 주요 2개 위성 텔레비전 방송망으로 매일 24시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여기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지혜의 말씀’부터 채식 요리, 전세계 시사 뉴스, 국제적인 오락 공연까지 다양하고 다채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밖에 전세계 어디서든 <http://www.suprememastertv.com/>에 접속하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 독일 사이트는 www.suprememastertv.com/de이다.

최근 일부 프로그램은 정규 방송과는 별도로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방송되며 독일어·프랑스어·아랍어·페르시아어·러시아어·스페인어·이탈리아어·중국어·한국어·어울락어(베트남어) 자막이 들어간다. 전세계 각지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 채널이 점점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말해 준다.

유럽과 전세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인터넷과 위성 프로그램의 새로운 출현을 알려 준 『라디오보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은 인류를 위해 밝은 미래를 창조하고자 애쓴 탁월한 인사와 빛나는 지도력을 표창하고자 칭하이 무상사께서 수여하는 영광으로서, 전세계의 정부·지도자·개인 자선가들의 모범적인 선행과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찬사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전달된다. 하트 평점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장려하기 위해 신이 보내시는 사랑의 상징이다.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중국 녹색눈

홍콩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30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단은 환경 보호 단체 ‘중국 녹색눈(中國綠眼睛)’의 설립자인 팡밍허(方明和) 씨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과 미화 5천 달러를 전달해 우리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그의 고귀하고 자비롭고 아낌없는 노고를 표창했다.

집안의 외아들이인 팡밍허는 어린 시절을 동물들과 더불어 지냈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이미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학대받고 학살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할 정도로 자비심이 충만했다. 그 때문에 종종 시장에서 동물을 파는 상인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불법 사냥꾼들의 뒤를 몰래 밟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그의 대담한 행동을 격정한 집안 어른들은 그에게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식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다. 이에 따라 그는 2000년,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세의 어린 나이에 ‘중국 녹색눈’을 창설했다.

창립 당시에는 회원이 12명에 불과했으며 주로 윈저우(溫州) 지역 내의 동물을 구하고 불법 수렵 행위를 신고하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3천 명에 달하는 회원을 갖춘 대규모 비영리 환경 보호 단체로 성장했다. ‘녹색눈’은 4대 목표를 추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과 미화 5천 달러를 수상한 팡밍허 씨(오른쪽).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팡밍허 씨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인터뷰를 받고 스승님의 영성서적을 선물 받다.

록 교육시키는 동물 보호. 3. 지방 정부, 환경 보호 단체들과 협력해 강과 산림 같은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자연보호. 4. 재난 구호 활동과 불우 이웃 돕기 활동을 통한 공익 증진.

팡밍허는 중국에서 환경 보호를 주창하기 위한 첫 단계를 '정신적인 환경 보호'라고 생각한다. 먼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난 후에야 환경 친화적인 생활방식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는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이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녹색눈'은 학교 내에 환경 보호의 씨앗을 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팡밍허는 또한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서방 국가와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환경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의 선례를 통해 가장 진보한 생태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고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중국 환경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팡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가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높은 이상, 대단한 열정을 지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환경 보호를 추진하는 방법이 지혜로 충만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수상을 기회로 그가 큰 힘을 얻어 계속해서 '녹색눈'을 통해 환경 보호 활동에 더욱 더 탁월한 공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세차 중인 청소년.



어느 세차장 사장님의 문제 청소년 사랑

포모사 신주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포모사 신주 현 주둥(竹東)에서 세차장을 운영 하는 린보쥔(林博鈞) 씨는 지역의 많은 원주민 가정의 아이들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거나 조부모가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 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이 아이들이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선 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설문조사를 한 후 린 씨는 가족들에게 골칫거리로 취급되는 문제 청소년들을 모았다. 그는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세차 기술을 가르치고 월급도 주었다. 지난 8년간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많은 청소년들이 그의 사랑에 감화를 받아 학업도 마치고 일을 통해 자긍심과 성취감도 얻었다.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치하하는 뜻에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4일, 칭하이 무상사를 대신하여 그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했다. 이는 불우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돌보는 그의 노고에 대한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이 보내는 감사의 상징이었다.

상을 받으며 린보쥔 씨는 칭하이 무상사께 고마움을 전했고 또 다음과 같이 겸손한 말로 소감을 표했다. "저는 그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를 다했을 뿐입니다.사실 그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린보쥔 씨와 청소년 친구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다.



문제는 사회의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좋게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버려둬선 안 됩니다. 인간은 성인(聖人)이 아닙니다. 누구나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되지요, 사소한 잘못으로 3년씩이나 감옥에 가둬 두어선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그들에게 좋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은 일을 주고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전 우리 사회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 젊은 이들을 좀더 잘 보살피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인정해 주고 그들이 자신감을 되

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관한 물음에 린 씨는 이렇게 답했다. “우선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훈육하고 가르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이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충고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일임을 린 씨는 다시금 강조했다.

시상식이 있던 날, 우리 신주 센터는 그의 세차장에서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린 씨와 세차장의 젊은 직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등 일련의 행사를 준비했다. 선물에는 스승님의 강연 DVD, 그림집, ‘대안적인 삶’ 서류 폴더, 축복 음식, 뉴스잡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웹사이트 주소가 새겨진 볼펜 등이 포함되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우리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푸짐한 채식 만찬도 함께 즐겼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린보전 씨의 모범을 배워 서로 힘을 모아 사랑과 관심에서 소외된 이 사회의 청소년을 돕기 바란다. ☯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어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다 ♥♥♥♥♥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아니발 살바도르 에체베도 빌라 지사.

2005년 푸에르토리코 자치주(Commonwealth of Puerto Rico)의 아니발 살바도르 에체베도 빌라(Aníbal Salvador Acevedo Vilá) 지사는 2005년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시책을 펼쳤다. 2006년 그는 소아비만으로 초래되는 건강 위험을 염려하여 '건강한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in Shape)' 캠페인을 발기했다. 이 건강 캠페인은 어린이들에게 좀더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도록 격려한다. 미화 8백만 달러에 이르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에는 국내 모든 시군 단위에 체육교사와 영양사를 초빙하는 데 필요한 기금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지사는 올해 푸에르토리코 내의 식당과 다른 요식업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트랜스 지방(trans fats)'을 퇴출하는



혁신적인 보건 시책을 통과시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보다 건강해진 시민들이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영위할 때 푸에르토리코는 진보합니다."

푸에르토리코 어린이들이 건강과 활력을 되찾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빌라 지사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스승님은 그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수여했다.

황금시대 4년(2007년) 8월 1일, 우리 협회에 보내 온 감사 편지에서 빌라 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와 그 시상 위원회가 저를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 수상자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해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표창에 감사드리며 언제까지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을 대 신하여 이 상을 받겠습니다."

자국 어린이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애정 어린 관심을 쏟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빌라 지사는 모든 이들을 일깨우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

참조:

<http://www.gdb-pur.com/documents/StateofCommonwealth03-06-07.pdf>

<http://www.msnbc.msn.com/id/18768818/>



푸에르토리코 빌라 지사의 감사 편지

(원문 영어)

푸에르토리코 자치주

지사

아니발 에체 베도 빌라

2007년 8월 1일

친애하는 칭하이 무상사님께

귀하와 같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에게서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을 받게 되어 깊이 감동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생애와 업적은 푸에르토리코와 모든 국제 사회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마음을 크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당신의 끝없는 헌신은 참으로 큰 감명을 주며 또한 사람들이 신과 우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심오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밖에 당신은 모범을 통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내면을 탐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고품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함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재임을 시작한 이래 저와 저희 조직은 ‘건강한 푸에르토리코’ 프로그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재원을 동원해 우리 아이들이 식생활과 운동 체제를 개선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당신의 표창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 루이자(Luisa)와 저는 언젠가 당신을 만나 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훌륭한 일에 최고의 축복을 보냅니다.

신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포르탈레자에서

아니발 에체베도 빌라 올림



빛나는 세계 영웅상

타즈-어느 개의 헌신적인 사랑

미국 콜로라도 뉴스그룹 (원문 영어)

“그들은 아주 사랑이 많고 다정하고 충성스러워 여러분을 위해 죽으려고 하지요. 여러분에게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할 겁니다. 보호 본능을 발휘해 언제든지 한 치의 후회도 없이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죽을 겁니다!”

~칭하이 무상사/ 2001. 6. 6. 미국 플로리다. 비디오테이프 No. 714 ‘개는 경이로운 존재이다’ (원문 영어)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14일, 콜로라도 동수들은 인간 반려의 생명을 구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 충성심을 표창하는 뜻에서 영웅견 타즈(Taz)에게 칭하이 무상사가 수여하는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대신 전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졌다.

타즈가 표창을 받게 된 고귀한 행위는 지난해 말 그가 다넬(Danelle)과 함께 유타 산(Utah Mountains)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났다. (뉴스잡지 184호 참조) 다넬이 60피트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사흘간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게 되자 그녀의 충실한 반려견 타즈는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구조 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타즈는 외딴 계곡으로부터 수 마일을 달려와 큰 소리로 짖어 구조대원의 주의를 이끌어 그들을 다넬이 있는 곳으로 직접 안내했다.

타즈는 ‘영웅상’ 외에도 칭하이 무상사가 디자인한 ‘해피도기’ 두 벌과 채식 사료 몇 상자, 장난감, 간식을 선물로 받았다. 또 침대 하나와 그의 이름을 금실로 아름답게 새긴 재킷도 두 벌 받았다. 다넬이 그중 한 벌을 타즈에게 입히자 타즈는 모두에게 보란 듯이 ‘모델’ 노릇을 하며 신이 나서 돌아다녔다.

타즈, 다넬과의 시간을 마쳤을 때 타즈는 인근 산의 호수에서 장난감을 쫓아다니며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아주 기운이 넘치고 행복해 보였다. 우리는 타즈에게 충성심과 지혜, 무아의 사랑을 표창하는 ‘빛나는 세계 영웅상’을 수여할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뻐다. 타즈가 사랑하는 반려 다넬과 함께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



다넬의 편지

2007년 8월 2일

안녕하세요.

타즈에게 주신 멋진 상과 모든 선물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타즈가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단체에 대해 좀더 잘 알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희 쪽은 모든 일이 순탄합니다. 새 일 때문에 바빠진 하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타즈도 여기를 좋아하고요! 여러분도 모든 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운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넬 드림

호주의 야생동물 회랑 지대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호주가 기후 변화로부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모든 호주 동해안을

있는 2,800km 길이의 야생동물 회랑 지대(Wildlife Corridor)를 만든다. 국립공원과 주(州) 산림 지대, 국유지를 연결시키는 이 지대는 야생동물들이 새로운 서식지로 옮겨갈 수 있게 함으로써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종(種)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생태 회랑 지대는 1990년대부터 논의돼 왔는데, 호주가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에 따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올해 이 계획을 승인하였다. 1단계 자금은 호주 각 지역, 주·연방 정부가 제공한다. 환경에 타격을 덜 주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의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http://www.reuters.com/article/environmentNews/idUSSYD14547020070709?feedType=RSS>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07/jul/30/conservation.climatechange>



주요 연락처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상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온라인 상점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에덴 동산: <http://www.EdenRules.com>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해피요기 · SM 보석 · 천의 · 만세등 ·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마천루 농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농경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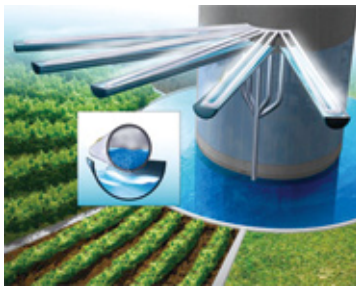
홍콩 뉴스그룹 (원문 영어)

지구 온난화의 시기에 좋은 소식!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인 딕슨 데스포미어 박사(Dr. Dickson Despommier)는 고층 건물을 농경지로 바꾸는 잠재력이 큰 농경법을 고안했다. 이 방법은 지구 온난화를 억제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농지를 원래의 자연 산림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딕슨 데스포미어 박사는 약 8년 전에 고층 건물에 농장을 짓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도시를 영속 발전시킬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하고 동시에 뉴욕 시에 먹을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해 보도록 요구했다. 이렇게해서 구상해 낸 30층짜리 '수직 농장(vertical farm)'은 태양 에너지와 풍력, 음식물 쓰레기 등을 동력으로 이용하고 도시 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한다. 그는 환경 보호적인 건축 시스템이 도시 환경을 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딸기, 블루베리, 심지어 미니 바나나 등 100여 종 이상의 과일과 채소들도 실내 농장에서 재배할 수 있으며 매년 5만 명에게 충분한 물과 과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데스포미어 박사는 기후와 날씨 형태를 안정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농작물 재배 방법을 바꿔 현재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숲을 다시 가꾸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실내 농장이 지구의 농지를 숲으로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숲의 면적이 증가해 지구 온난화가 억제되는 점 외에 수직 농장을 개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인구 증가이다. 2050년이 되면 지구 인구의 80%가 도심에서 거주하게 되며, 지금의 인구 통계 추세로 보자면 그 무렵엔 지구의 인구가 3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만일 전통적인 농경 방식을 이대로 계속 채택한다면 이들을 먹여 살릴 식량 때문에 더 많은 땅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인구의 60%가 도시에 살고 있다. 우리 인류는 기후 변화에 대처해 잘 보호받고 있지만, 우리 식물들은 의





부의 혹독한 환경에 놓아둔 채 한 해의 날씨가 좋기만을 바란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홍수·가뭄·태풍·극심한 장마는 해마다 엄청난 피해를 낳고 수백만 톤의 곡물을 망쳐 놓는다.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들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락함’과 보호를 똑같이 누려야 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제 우리 먹을거리를 환경 통제가 가능한 도시 건물 속에서 키우기 시작할 때가 됐을지도 모른다.

실내 재배의 개념은 진작부터 유행해 왔다. 온실 재배를 통해 토마토와 허브, 다른 농작물들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30억 인구의 수요를 맞춰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 때문에 실내 농경은 유난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수직 농장은 효율성이 크고 건축비가 저렴하며 관리 면에서 안정적이다. 데스포미어 박사는 첫 번째 수직 농장이 15년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새로운 고층 농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인류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고 광대한 토지가 원래의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지속 가능한 도시 생활을 장려하면서 도시 생활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

관련 웹사이트: <http://www.verticalfarm.com/essay.php>
<http://nymag.com/news/features/30020/>



손해도 학습의 한 방법

칭하이 무상사/ 2003. 2. 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5

“정부의 복권 사업이 얼마나 교육적인
 “정지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했어.” 어떤 남자가 이웃에게 말했어요. “당첨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 ☺




스승님의 농담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감상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89/jk1.htm>
<http://www.Godsdirectcontact.us/sm21/enews/www/189/jk1.htm>

우리의 인간 품성과

숭고한 품성을 계발하자

칭하이 무상사/ 2007. 7. 1.
영국 서리 센터와의 전화 강연 (원문 영어)



이것은 업장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폭력을 만들어내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전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오래 전에 서로간에 악업을 지었다는 것인데, 만약 이생에서 서로를 용서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계속 그러는 것은 좋은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면 배우긴 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종교마다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가르치니까요.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들은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단체에도 전에 평화롭지 못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그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입문할 때 우리 업장은 소멸됩니다. 이번 생의 정업만 남게 되지요. 이생에 다시 돌아와 나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좋은 가르침과 좋은 스승을 따르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업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어 모두들 더욱더 나아질 것입니다. (동수들에게 말씀하심) 고민이나 문제는 없나요?

동수: 없습니다. 저희는 스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많은 축복이 느껴집니다. 전 최근에 호주에서 귀국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5년 동안 그곳에 살았지요. 아내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센터를 처음 방문했는데 마침 스승님께서 전화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 천만예요. 거기서 행복한가요?

동수: 예, 행복합니다. 저희는 전에 이곳에서 살았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입문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했지요. 태국 선행사에서 스승님을 뵈었는데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스승: 멀리서 겨우 봤겠군요? 좋아요. 당신은 영국인인가요?

동수: 예.

스승: 그런데 어쩌서 억양이 호주 사람 같지요? (대중 웃음)

동수: 너무 많은 호주인과 어울려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스승님.

스승: 영향을 받은 거군요. (동수: 예.) 상상이 되나요? 겨우 5년 살았을 뿐인데 바뀌다니요. 억양이 호주인 같아요.

동수: 그곳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승님: 예,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이토록 오래 살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 지 상상이 됩니까? 우리도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근원을 잊어버립니다. 이 물질세계에 너무 오래 살면, 꼭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물질세계에서라도 지나치게 오랫동안 살면 우리는 자신을 더욱더 물질적 존재로 동일시하게 됩니다. 호주에서 돌아온 그 사형처럼요. 그는 그곳에서 겨우 5년 동안 살았을 뿐인데도 지금 그의 억양은 호주인 같습니다. 그는 분명 많은 호주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그 맛을 잊지 못해 아마 영국에서도 계속 그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호주인의 습관이나 전통을 익힌 까닭에 영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세계에 너무 오래 살게 되면, 이 행성이든 다른 물질적 행성이든 똑같이 우리는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생활 방식, 물질적인 사고방식, 물질적으로 집착하는 방식에 지나치게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천국을 기억하려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설령 여러분이 내 지도를 받고 내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한다 해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업장 때문에 분투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악업을 지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뉘우치기만 하면 항상 천국과 신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번 생이 중요한 거지요. 과거의 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번 생을 정말 잘 돌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세에는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아의 중요성

천국의 존재처럼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아(無我)의 마음, 무아의 마음, 무아의 마음이 되십시오!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십시오. 내겐 그 외의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이

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 심지어 동물에 대해서라도 나는 있는 힘껏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안락함과 몸조차 잊어버리지요. 난 그렇게 타고났어요. 여러 번 말했듯이 이런 건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따라하고 시도한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될 것입니다. 설령 그 동기가 무아의 마음이나 무조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해도 적어도 상대방은 그 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무조건적인 마음으로, 사랑과 무아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이번 생 동안 과거의 업장에 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거 생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용서한다 해도, 여러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 보다 고귀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늘 이런 잔재를 지니고 다니게 되고 ‘유유상종’의 법칙으로 인해 이런 분위기나 이런 에너지를 더욱더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원토록 개선될 길이 없고 심지어는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영성은 IQ보다 HQ와 NQ로 측정된다

내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문제는 당연히 예고와 업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IQ라 불리는 것입니다. IQ는 지적인 품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NQ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NQ가 무엇인지 압니까? (대중: 모릅니다.) 그것은 숭고한 품성(Noble Quality)입니다. 또 HQ라는 것도 있습니다. HQ가 뭔지 압니까?

동수: 천국의 품성(Heavenly quality)이요.

스승님: HQ는 인간 품성(Human Quality)입니다. 인간 품성은 여러분이 얻은 인간 세포(Human Cell)의 양입니다. 더 고귀한 사람일수록 인간 세포는 더욱더 많습니다. 요직에 있는 소위 고귀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혹은 가장 세력이 큰 종교 단체에서 큰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 중 일부 인사들이 충분한 HQ와 NQ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해 주지요. 동물들은 NQ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 사자와 호랑이는 NQ, 숭고한 품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인간의 경우, 충분한 HQ와 NQ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동안 다시 퇴화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생에서 NQ와 HQ가 충분하지 않은데, 그것은 그들이 전생에 아주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성격이 아주 못됐거나, 혹은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나 단순한 시기, 질투 같은 저급한 동기로 살인을



했거나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저급한 동기는 그들을 지옥이나 동물계로 떨어뜨립니다. 그들이 빛을 갇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다 해도 충분한 NQ와 HQ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인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NQ와 HQ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요.

IQ는 쉬운 분야입니다. IQ는 세속적 지식을 배우거나 연습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일할수록 IQ는 더욱 계발됩니다. IQ는 자연적인 반응과도 비슷합니다. 만일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거나, 생존을 위해 빠른 반응과 빠른 생각을 요하는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생존 본능 기술이 드러날 것이고 IQ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 다양한 직업이나 다양한 생활방식을 겪기만 해도 IQ는 계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습관일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양하게 사고하거나 빠르게 생각하도록 훈련한다면 두뇌는 그러한 방식에 익숙해져서 다양한 정보들을 기록해 뒀다가 필요할 때 반응할 것입니다. 이는 많은 자료들을 저장하고 있는 성능 좋은 컴퓨터와 같습니다. 많은 자료를 다운로드 할수록 많은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IQ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계발할 수 있지요. 하지만 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IQ조차 계발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왔다면 모두들 매우 총명해졌어야 마땅합니다. 내 말은, IQ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NQ와 HQ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HQ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천국이 여러분의 공덕에 따라 부여한 것으로서, 대체로 업장과 같습니다. HQ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하는 인간 품성입니다. 인간의 몸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16%의 HQ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HQ가 많을수록 더욱더 자애롭고 더욱더 인간답습니다. HQ가 적을수록 인간 같지 않고 잔인한 동물 같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높은 HQ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개들의 경우 12%의 HQ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인간과 비슷하지요. 4%만 더 있으면 그들은 여러분이나 나처럼 보일 것입니다. (대중 웃음) 일부 야생 새들조차 HQ가 높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와 사자 같은 경우는 HQ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착한 동물들은 HQ, 인간 품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처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다른 이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HQ가 매우 낮은 것입니다. 그들은 HQ가 충분해 인간이 되긴 했어도 전생의 업장과 공업(共業)으로 인해 수준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공업이란 그들이 교류하는 사람들, 처한 상황, 태어난 장소,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형성하는 업장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연에 의하거나, 운에 따라, 혹은 큰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을 접함으로써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더 낮아져서 그들이 속한 곳, 이를테면 지옥이나 흉악한 동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부 동물은 인간보다 NQ가 높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을 받을 만한 인간 품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NQ지요. NQ는 HQ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HQ가 충분하

면 인간이 되겠지만 충분한 NQ, 숭고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때도 다시 떨어져 지옥 같은 세계나 아주 흉악하고 무서운 왕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왕국이라 할 수 있다면 말이지요. 예를 들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나 천국의 창조에 의해 자연스럽게 태어난 동물들은 HQ와 NQ가 아주 높습니다. 그들이 가진 NQ로 인해 그들은 서로 평화롭게 살다가 나중에 원래 속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인간이 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먹지만 돼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돼지는 IQ와 HQ, NQ가 아주 많습니다. 돼지의 NQ는 30%입니다. 놀랍지요? (대중: 예.)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겨우 2%나 3%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돼지와 닭을 먹는 것입니다. 닭의 경우 NQ가 4%입니다. **NQ는 우리가 더욱 무아의 마음이 되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더욱 무조건적이지게 해줍니다.** 난 닭한테는 많은 NQ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그 세계에서 그 정도의 NQ면 새끼들과 동족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닭들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고귀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미 닭이 작은 병아리와 함께 있는데 큰 짐승이 와서 병아리를 잡아가려고 한다면 어미 닭은 체구가 아주 작다 해도 싸울 것입니다. 부리와 발로 할퀴고 쪼아대며 온갖 방법으로 병아리를 보호하려 할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난 “꽹, 꽹” 하는 소리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리를 잡아먹는데, 그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오리는 8% 정도의 NQ, 숭고한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어미 오리가 온 힘을 다해 새끼 오리들을 지키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다른 동물이 가까이 다가오면, 큰 동물이든 작은 동물이든 그녀는 그 작은 몸으로 싸워서 내쫓습니다. 어미 오리나 새끼 오리들에게 모이를 주다가 그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 어미 오리는 오랫동안 알을 품고 있다가 둥지에서 막 나온 참이었는데 많이 먹지도 않았습니니다. 새끼들을 먼저 먹였지요. 새끼들이 먹고 있을 때 그녀는 한입도 대지 않았습니니다.

내가 말하는 이 오리들은 야생 오리입니다. 인간이 기른 이른바 더 ‘문명화’된 오리도 아니지요. 그들은 야생 오리였어요. 우연찮게 야생 구역 근처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 오리들이 살고 있었고, 난 그들에게 모이를 주었습니다. 어미 오리는 새끼 오리들을 있는 대로 최대한 먹였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뒤 새끼들이 무언가에 놀라셔도망을 치거나 하면 어미도 그 뒤를 따라잡니다. 어미는 먹지도 않습니다. 먼저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지요. 어미는 새끼들을 먹이는 동안에는 내내 곁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녀는 8%가량의 NQ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리들이 그렇지만, 일부 오리들은 훨씬 특별해서 NQ가 그보다 높고 심지어는 10%에 달하기도 합니다.



오리와 닭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든지 죽입니다. 크든 작든 다 죽이지요.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바다의 물고기도 죽이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거나 괴롭히지도 않는 날아가는 새들도 총을 쏘아 잡아먹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키워서 먹고, 밀림에 가서는 코끼리를 잡아먹고, 바다에 가서는 고래를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온갖 것을 먹습니다. 우리보다 더 고귀한 이 모든 존재들을 먹지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고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행

성에서 가장 두려운 생명체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인간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바뀌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추세가 보입니까? (대중: 예.) 채식인과 채식주의가 더욱더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그것을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그 점에 대해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때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외칠 겁니다. “멈춰요. 이 모든 잔인한 행위를 멈추세요. 제발 그만해요!” 이 행성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살생은 참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 수도 없으며, 인간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매일 수백만의 동물들이 고통받습니다. 아니 매일이 아니라 매분마다, 그것도 단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말이지요. 사람들에게겐 이미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마 호랑이와 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인간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해서 먹을 음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경작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요. 모두가 먹고도 남을 충분한 식량이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총명하고 더 고귀한 존재들을 먹으려 갑니다. 단지 그들이 더 고귀하고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는다는 이유요. 그래서 그들이 방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귀하기 때문이지요.

오리의 NQ 이야기

또 다른 오리 이야기를 해줄게요. 오리 and 닭의 이야기일 뿐이니 여러분은 인간들의 행위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마리 부부 오리가 있는데 이제는 나와 익숙해져서 늘 우리 집에 옵니다. 배고플 때마다, 마음 내킬 때마다 우리 집에 오곤 하는데 그럼 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질 나쁜 몇몇 오리들이 아내 오리를 쫓아다녀서 남편 오리는 늘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녀가 먹을 때면 그는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 마당에 와서 내가 모이를 주면 그는 아내를 먼저 먹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먹고 난 뒤에야 그는 먹습니다.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먹이를 줄 때는 대부분 물에서 줍니다. 그래야 그들이 쉽게 삼킬 수 있으니까요. 빵이 물에 들어가면 부드러워지고 삼키기가 쉬워서 목이 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육지로 올라와 내 집에 올 때는 그냥 모이를 줍니다. 그들을 쫓아내거나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부드러운 슬라이스 통밀 빵을 작게 잘라서 주면 그들은 그것을 먹습니다. 하지만 땅 위에서 먹으면 너무 목이 메서 물로 달려가 물을 마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난 그가 빵을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간혹 그녀가 가까이서 자거나 하면 그가 와서 무척 배고팠던 것처럼 먹고 먹고 또 먹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먹을 때는 그 곁을 지키기만 하지요. 주변을 돌아보며 음식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냥해서 먹거나 무시해 버리곤 하는 아주 평범한 야생 오리가 이렇습니다. 이들은 인간보다 훨씬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오리들은 사람들보다 NQ가 두 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은 고귀해지도록 훈련받지 않아서 송고한 품성이 비교적 적지만, 고귀한 가르침을 배운다면 그들도 많은 나쁜 업장을 피할 수 있으며 때가 되면 더욱 고귀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해로운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살아 있는 스승의 가르침에 담긴 본질

그러므로 살아 있는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을 알려주지요. 관음법문이나 비폭력 같은 좋은 것을 가르치는 교파나 우리 단체에서조차 몇몇 사람들의 숭고한 품성은 매우 낮습니다. 숭고한 품성이 2, 3%밖에 안 되지요. 그렇긴 해도 그들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적어도 채식하고 살생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누구도 해치지 않지요. 하지만 이들은 내면에 약간의 잔재가 남아 있는 탓에 무조건적인 사랑 없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일을 좋아해서 또는 일 중독자라서, 혹은 중요 인물이 되고 싶거나 그저 뭔가를 하고 싶어서, 혹은 그럴싸한 일인 것 같아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여전히 전에 있던 낮은 예고의 품성이 남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의 해로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는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이었지만 약간의 해도 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누구에게도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수행 단체의 가르침이 낳는 결과입니다. 심지어 우리 단체의 어떤 사람들은 NQ가 충분치 않지만 노력하고 발전하면서 자신의 NQ 점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지요. 나는 이것을 발견하고 아주 기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지요. 사람들에게 유로나 달러, 루피 대신 NQ와 HQ를 보물 창고에 쌓아가도록 일깨워 주는 일 같은 것 말입니다. (대중: 감사합니다, 스승님.)

큰스승의 훌륭한 가르침은 정말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유익합니다. 설령 전세계 혹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충분한 NQ를 갖고 있지 않다 해도 그들이 예수나 부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적어도 나쁜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낫지요. 어울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욕합니다. 신앙이 없다는 뜻인데, 어울락에서는 최악의 욕입니다. “무신론자(DÔ VÔ ĐẠO)”라는 말은 누군가를 욕할 때 쓰는 최악의 말로서, 믿음도 없고 무신론자이고 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이 깨달음을 전해 주지는 못했다 해도 적어도 그 도덕적 가르침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용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쁜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고 자신의 도덕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종교인들조차 서로 반목하곤 했지만 지금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고 있지요. 앞으로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이 모두 평화롭고 화목하게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원하신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부유하고 평화롭게, 사랑으로 충만하고 풍요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영성이나 도덕적 관념의 결핍, 보다 고귀해지고 보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는 침몰해 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큰스승의 가르침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안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고 그곳에 머물게 해줄 것이며 더 뛰어난 보호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호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높아져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것입니다. ☯

다음 호인 뉴스잡지 190호에 실릴 ‘우리의 인간 품성과 숭고한 품성을 계발하자’ 후속편을 기대해 주세요!

스승님을 그리며

샤오 사저/ 중국 (원문 중국어)

마음이 기쁠 때면 스승님이 그리웁니다.
미소 띤 두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 자애로운 눈길이 그리웁니다.

마음이 슬플 때면 스승님이 그리웁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 어린 손길이 그리웁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면 스승님이 그리웁니다.
내 갈망하는 영혼을 축복해 주시는
그 성스런 자비님이 그리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승님이 그리웁니다.
스승님을 그리 할 때면
내 마음은 아이처럼 순진무구해집니다.



스승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중국 지린 성 동수 (원문 중국어)

스승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의 우주적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스승님, 언제 어디서나
스승님을 가까이 따르겠어요.
스승님의 홍범 활동,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스승님의 텔레비전 방송이 전세계에 퍼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만 중생이 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스승님의 법음(法音)이 지구에 울려 퍼집니다.

진리의 샘이 끝없이 솟구쳐올라
온갖 더러움과 진흙을 맑끔히 씻어 내립니다.
찬란한 행성이
이제 막 천국으로 솟아오르려 합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

아세안 40주년 기념 경축 행사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영어)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아세안 공연 및 매체 예술 워크숍(ASEAN Performance and Media Arts Workshop)이 황금시대 4년(2007년)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아세안(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40주년 경축 행사의 일부로, 칭하이 무상사도 행사에 초청되었지만 선약 때문에 대리인을 보내셨다.

8월 8일 오전 필리핀 외무부(Philippin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에서 개최한 개회식에는 전세계 사절단이 참석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대표단이 펼친 웅장한 공연은 청중들을 전율시켰으며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공연이 끝난 뒤 ‘동남아시아의 문화 예술: 이념·양식·사회(Southeast Asian Art and Culture: Ideas, Forms, and Societies)’, ‘아세안 40주년 기념 우표 전시회(ASEAN 40th Anniversary Stamp Exhibition)’ 등 두 가지 전시회의 개관을 축하하는 흥겨운 행사가 개최되었다.

많은 귀빈들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갖고 공연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필리핀 외무부 로물로(Romulo) 비서관은 아세안의 다문화적 활동이 여러 다른 국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시키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해내서 기쁘다고 말했으며, 국가문화예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의 집행 감독인 세실 알바레스 여사(Mrs. Cecile Alvarez)는 “이는 평화를 증진시키는 본질적인 요소로 문화를 응용하는 선례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아세안 공연 및 매체 예술 워크숍의 쇼케이스인 ‘아세안 미니 예술제(ASEAN Mini Arts Fest)’는 8월 8일 오후 성 바오로 대학교(St. Paul's University)에서 개최되었다. 행사 초대장에는 아세안 사무총장 옹켑용(Ong Keng Yong) 씨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덕분에 이번 공연이 가능했으며 국가문화예술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조해 주었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알바레스 여사는 다음과 같이 송고한 생각을 밝혔다. “.....행사의 목적은 가난과 싸우고, 환경 오염과 싸우고, 여성·어린이·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과 교육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협력



필리핀 외무부 비서관 알베르토 G. 로물로 씨(왼쪽)와 아세안 필리핀 대표단 루이스 크루즈 단장(오른쪽)이 리본 절단식을 하다.



태국 차트리찰레름 유콜 전하가 영화제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다. 왼쪽에서 첫 번째는 세실 알바레스 여사.



칭하이 무상사의 대리인이 전달하는 선물을 기쁘게 받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거장 베니 탄토 씨.



아세안 10개국 예술인들의 조화로운 공연.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스승님의 선물을 전달하다.



워크숍 감사장에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모든 주최자와 후원자(칭하이 무상사 포함) 대표들의 사인과 로고가 실렸다.

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연은 라오스·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브루나이·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태국·싱가포르 등 아세안 회원국의 예술인들이 참여해 이루어졌다. 말레이시아의 기타 거장인 베니 탄토(Benny M. Tanto) 씨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인터뷰를 받고 자신의 앨범인 '실버 기타 콘서트'(Silver Guitar Concert)' 한 장을 주며 감사를 표했다. 태국 예술인 가운데 한 사람은 모든 공연자들이 예술이라는 같은 언어로 소통했기에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칭하이 무상사는 특별히 자신의 시 낭송 DVD와 예술 작품집 몇 권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선물했다. 모든 대표들이 이 품격 있는 선물을 받고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후 8월 9일에는 제9회 시네마닐라 국제영화제(CineManila International Film Festival)가 필리핀 케손(Quezon) 시에서 아세안 40주년 축하 행사와 동시에 개최되었다. 영화감독이자 태국 왕자인 차트리찰레름 유콜(Chattrichalerm Yukol) 전하께서 아시아 영화 중

진에 기여한 공로로 '평생 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그는 스승님의 두 DVD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과 '보석 시집'을 선물로 받고 기뻐했다.

참가자들과 청중, 직원, 방문객들의 열렬한 호응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아세안 예술인 워크숍과 쇼케이스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기쁜 증거였다. 우리는 아세안 회원국의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자국의 동포들에게 나눔과 사랑, 단결의 이념을 전파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 ☯



태국 차트리찰레름 유콜 전하가 선물로 받은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DVD와 칭하이 무상사의 시 낭송 DVD '보석 시집'을 보이며 기뻐하다.

제40회 아세안 기념 행사를 다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89/media/ASEAN.asf>

스승님의 아세안 워크숍 후원에 대한 감사 편지

(원문 영어)

필리핀 말라카냥 대통령 관저

2007년 8월 13일

친애하는 칭하이 무상사님께,

‘국제연합 새천년 개발 목표(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개최된 ‘아세안 공연 및 매체 예술 워크숍(ASEAN Performance & Media Arts Workshop)’을 후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된 이 집중 프로그램에서 아세안 10개국에서 발탁된 예술가들은 서로의 분야와 문화, 신앙에 대해 교류할 수 있었고 많은 결실을 거뒀습니다. 저희는 특히 외무부의 개막식에서부터 성 바오로 대학교(St. Paul University)에서 열린, 예술가들의 공연과 매체 예술의 성과를 소개하는 미니 예술제(Mini Art Fest)에 이르기까지 아세안 40주년 기념 행사를 취재하도록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팀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나라들이 예술이 단결·협동·조화의 촉매가 될 수 있음을 시범 보여 준 모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문화적 전통의 풍요로움과,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매우 감동적인 창작품을 제출함으로써 가난과 기타 사회적 병폐를 극복하고자 희망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특히 협력과 국민 교육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이러한 꿈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자였음은 물론입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옹캥용(Ong Keng Yong) 아세안 사무총장이 사이닝 지싱(Sining Gising) TV 쇼에 출연해 직접 참가자들에게 이 역사적이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이를 시점으로 하여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 것입니다. 이번 아세안에서는 시네마닐라(CineManila) 국제 영화제 개막식에도 초점을 두었습니다. 방콕 외 다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영된 태국 차트리 왕자(Prince Chatri)의 서사시는 향토·전통·역사·언어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린 회장을 보내 대리 축사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는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당신의 후원이 갖는 진가를 인정한 표시였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당신이 영적인 지도자이자 예술가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이번 행사 참석자들과 운영 팀에게 보내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감사의 표시로 저희 또한 아세안 문화를 세계 무대에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를 보냅니다. 다시 한 번 더 아세안 문화 전통의 우수성을 소개하고자 하는 당신의 관심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보냅니다.

감사와 애정, 존경과 함께

공공업무 문화 부문/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집행 감독
세실 귀도테 알바레스,

추신: 제 남편과 조 래드(Joe Lad) 씨가 안부 인사를 보냅니다. 오실 일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마닐라 방문 기간 동안의 일정을 적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재난과 곤경에서 나를 보호하시다

야편 사저/ 중국 (원문 중국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님,

제가 입문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어디
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사랑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지요!

작년 태국 선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돌아가는 비행기 편을 11월 30일로 예약해 뒀는데, 바로
그날 스승님께서 저녁 식사 후에 깜짝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아서 선물을 받을 것인지,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물론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했지만 돈이 거의 떨어
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몇몇 사제들이 돈을 모아 제 비행기표를 바꿔 주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이 싫어할까 봐 매우 불안했습니다. 우리 집 경제권은 남편한테 있었으니까요. 그래
서 저는 속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해 달라고 스승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기도는 응답을 받
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과 온 식구들이 모두 신이 나서 저를 에워싸고선 여행이 어땠냐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돈을 준 덕분에 저는 다음날 사제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의 도움 덕분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
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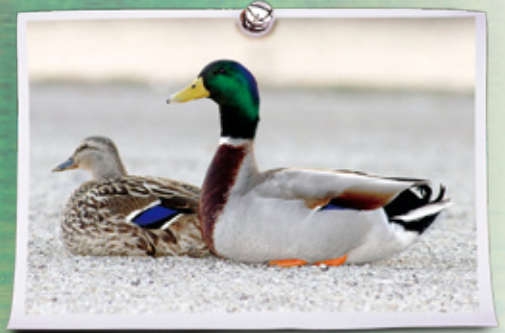
또 한번은 저녁 밥을 짓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70세가 넘는 어머니께서 먼 길을 걸어 오신
것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저는 얼른 어머니를 부축해 집안으로 모신 후 물을 한 잔 따라 드리고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주방 위쪽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네 집에서 밥을 하는데 저렇게 연기가 많이 나지?’ 하고 의아해하다가 문득 바로 우리 부엌이고 방
금 전에 가스 불과 환풍기 끄는 것을 깜박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손살같이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엄청난
불이 가스 레인지와 환풍기를 완전히 집어삼킨 상태였습니다. 저는 눈앞의 상황에 너무 놀라 어쩔 줄 몰
라 하다가 곧 오불을 외면서 빨리 불을 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은 온통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나
중에 주방을 치우면서 보니 가스 스토브 위와 아래에 놓여 있던 페트병은 모두 불에 녹아버렸는데 나무로
된 창문은 멀쩡했습니다. 가장 다행스러웠던 일은 가스 스토브에서 1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던 가스 통
이 폭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은 스승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돕고 축복해 주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
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스승님의 위대한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스승님,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굳게 따르고 실천할 것이며, 보다 많은 이들이 행복한 삶
을 살고 더욱 고귀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관음법문의 이로움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스승님의 건강과 성공적인 흥법을 기원합니다!

2007년 7월 22일

제자 야편 올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과 고통을 느낀다

데이비드 M. 사형/ 미국 오하이오 (원문 영어)

어느 날 아침 출근 길에 청둥오리 한 쌍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다. 이들은 햇볕을 즐기고 먹이를 먹으며 알을 낳고 둥지 틀 곳을 찾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며칠간 계속되었다. 몇 번 정도 이들이 복잡한 도로를 함께 건너는 걸 보고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인근 풀밭이 아닌 도로변에서 서로 바짝 붙어 있는 게 보였다. 나는 그중 한 마리가 다쳐서 거기 있는가 보다 하고 추측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우선 그들이 괜찮은지 살폈다. 내가 사는 곳 부근에는 동물을 구조해 건강해지도록 돌봐준 다음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야생 동물 구조단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끔찍하게도 '부인 청둥오리'가 차에 치여 이미 죽은 상태였다. '남편'이 그녀 옆에서 애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다.

나는 그가 안정을 되찾고 계속 살아가게 해 달라고 스승님께 기도드렸다. 그렇게 도로변에서 애도하다가 다른 차에 치여 죽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연이어 사흘 동안, 그는 사랑하는 부인의 시체 옆에 머물렀다. 그 모습에 눈물이 났고 거의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도, 매일 저녁 퇴근길에도 남편 청둥오리는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 때문에 나도 더욱더 가슴이 아팠고 스승님께 그가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드렸다.

나흘째 되던 날, 출근하다가 그가 마침내 떠난 것을 보고 그제야 안심이 됐다(스승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나는 차를 세우고 그가 차에 치어서 뒤편에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확인까지 해봤지만 그는 정말로 가버리고 없었다. 그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나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새들과 동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하길 간절히 바랐다. 그러면 아마도 더욱더 많은 이들이 자비심으로 인해 채식인으로 바뀔 것이다. ☯


강을 건너다니며 강아지를 키운

용감한 어미 개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7월 중순, 중국 쓰촨(四川) 성 충칭(重慶) 시에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양쯔 강이 불어나 범람하는 바람에 많은 재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어미 개 한 마리가 강을 건너 다니며 작은 섬에 있는 새끼들을 키우는 영웅적인 행동이 알려지게 되었다.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꽃순이'라 불리는 이 개는 몸집이 작고 털에 희고 노란 줄무늬가 있다. 7월 초 산호초에서 강아지 네 마리를 낳았는데 심한 폭풍우로 인해 강물이 범람해서 육지와 이 산호초를 잇는 도로가 침수되는 바람에 산호초는 섬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자기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꽃순이는 거친 양쯔 강에 휩쓸리는 위험을 무릅쓰며 매일 밤 1킬로미터 이상을 헤엄쳐 산호초로 와서 강아지들과 밤을 보내고 아침이면 다시 강을 건너가 먹이를 구했다.

꽃순이는 매우 용감하고 애정이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총명했다. 그녀는 날마다 상류에서 물살을 타고 산호초에 도착했다가 나중에 하류에서 물살을 타고 해안에 도착하는 식으로 힘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경로를 택했다. 어느 날 꽃순이와 강아지들을 걱정한 몇몇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섬을 찾아갔다. 섬에 도착했을 때 물이 상당히 불어 있었고 강아지들의 보금자리였던 임시 작업장이 침수돼 있어서 모두들 강아지들이 변을 당하진 않았는지 걱정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꽃순이는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속빈벽돌 무더기 안쪽에 누워 포동포동한 네 마리의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때 이들을 찾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문득 꽃순이가 전날 평소보다 일찍 섬으로 돌아간 것을 기억해 냈다. 강이 불어나는 걸 알아채곤 서둘러 돌아가 새끼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게 분명했다.

사람들의 입소문과 매체 보도를 통해, 꽃순이는 충칭 시민들과 전국의 동물 애호가들한테 대영웅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꽃순이를 보면 자발적으로 먹이를 주곤 해서 그녀에게도 충분한 영양과 체력이 생겼다. 이 밖에 몇몇 사람들은 꽃순이와 강아지들을 입양하고 싶어하거나 섬에 가서 그들을 돌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용감무쌍한 마음을 지닌 작은 영웅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7월 초, 한 살 된 남자 아이 부커 웨스트(Booker West)가 콜로라도 북부의 할아버지네 뒤뜰에서 놀고 있을 때 방울뱀이 다가왔다. 뱀이 막 공격하려던 찰나 5파운드(2.3kg) 밖에 안 되는 작은 치와와 ‘조이(Zoey)’가 곧바로 그 사이로 뛰어들어 자기 몸을 방패로 보호하다 대신 물렸다.

처음에 조이는 살아나지 못할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는 완전히 회복돼 건강해졌고 주변 모든 이들의 사랑과 감사를 받았다. 🐾

자료 출처:

<http://www.ihl.com/articles/ap/2007/07/22/america/NA-ODD-US-Chihuahua-Rattlesnake.php>

http://news.yahoo.com/s/ap/20070724/ap_on_fe_st/odd_chihuahua_rattlesnake;_ylt=Arab_ssTUiBe9_VBK_I4eMZ.3QA

임종하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고양이의 사랑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미국 뉴잉글랜드(New England)의 한 요양원에 있는 ‘오스카(Oscar)’라는 이름의 두 살배기 고양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날지 예견하는 듯 그들과 함께하며 위로해 준다. 오스카는 지금까지 이 요양원에서 25명의 환자를 보냈다. 오스카의 정확성 때문에, 그가 어떤 환자의 침상에 앉은 모습이 보이면 요양원 직원들은 바로 그 환자의 가족들을 부른다. 그들은 이런 상황이 보통 환자의 생명이 4시간 미만 남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오스카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임종 시간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고, 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말기 환자 전문가 호안 테노(Joan Teno) 박사는 말한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 오스카가 가르릉 소리 내며 따뜻하게 옆을 지키는 것은 사랑으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 주는 것과 홀로 외로이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대부분 가족들은 이 임종 예고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 그들은 이를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로 여기며 오스카의 애정 어린 동반을 감사히 여긴다.

최근 오스카는 지역의 한 호스피스 단체로부터 상패를 받았다. 현재 이 상패는 요양원 벽에 걸려 그의 ‘사랑으로 충만한 간호’를 기리고 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최근 호에는 이 고양이의 독특한 역할을 담은 감동적인 글이 실리기도 했다. 🐾

자료 출처:

<http://www.msnbc.msn.com/id/19959718/>

<http://content.nejm.org/cgi/content/full/357/4/328>




거위와 소통하는 마틴 호프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23세의 거위 전문가인 마틴 호프(Martin Hof)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보건부에 고용됐다. 그가 네덜란드 중서부 델프트(Delft) 지방의 공원에서 하는 일은 과잉 번식한 거위들과 인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다.

거위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는 ‘거위에게 속삭이는 사람(The Goose Whisperer)’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연합통신(Associated Press)』 측에 말하길, 거위는 매우 똑똑하며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멍청한 거위’가 아니라고 했다.

공원의 거위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프는 그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찾아주고 가족별로 나누어 줌으로써 이동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시킨다. 이는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다. 거위는 일반적으로 일부일치이며 한 쌍은 40년간 함께 살 수 있다! 배우자와 갑자기 헤어지면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외로움에 죽기까지 한다.

호프는 대화를 통해 거위들을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눈에 거위를 가족 단위로 알아볼 수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공원에서 이 거위 무리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도록 권하는 한편 시 공무원들한테는 애초부터 거위들의 과잉 번식을 예방하도록 교육시킨다. 

자료 출처: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07/18/AR200707180165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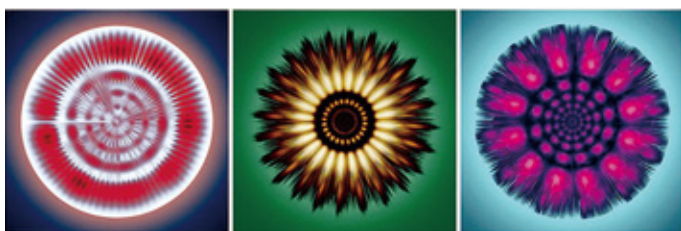
네덜란드 중서부 델프트의 한 공원에서 거위들을 관찰하는 마틴 호프.



소리로 소통하는 고래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해양 생물학자 피터 타이악(Peter Tyack) 씨가 진행한 과학 연구는 고래들이 복잡하고 반복적인 소리 패턴으로 소통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북캘리포니아의 공학자 마크 피셔(Mark Fischer)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기술인 웨이브렛(Wavelets)을 이용해 이 패턴을 영화와, 마치 음파(音波) 만다라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스틸 이미지로 변환시킬 수 있었다. 웨이브렛은 인간의 귀나 비교적 정밀도가 떨어지는 시각화 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미묘한 차이를 잡아낸다.



마크 피셔는 고래와 돌고래의 미세하고도 차이가 있는 소리를 이런 만다라와 같은 이미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수학적 도구를 발견했다.

비교한 바에 의하면, 모든 고래 종류는 그들만의 독특한 패턴과 공명을 가지고 있다. 피셔 씨는 이를 ‘청각 지문(auditory fingerprints)’이라고 칭한다. “누구든 잠시라도 고래 주변에 있어 본다면 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셔 씨가 한 인터뷰에서 얘기한 말이다. 우즈홀 해양과학 연구소(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의 선임 연구원인 피터 타이악 박사는 이것을 예술이자 과학 연구의 도구로 본다. 그는 고래의 노래에 나타난 반복성이 인간의 언어와 비슷한 문법 규칙을 따른다고 믿는다. 타이악 박사는 말했다. “수많은 반복적인 단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셔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잠깐이나마 볼 수 있게 해준다. 과학과 예술의 결합을 통해 생물학자와 대중 모두에게 고래에 대해 좀더 올바르게 인식할 것을 장려하고 있는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고래가 소리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보거나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게 된다면 인류가 이 지구상의 유일한 예술가가 아니란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

♥♥♥♥♥♥♥♥ 사랑의 불바람이 보여 떠돌이 개들을 구해 내다

중국 동수 (원문 중국어)

얼마 전 중국 인터넷상에서 네이멍구(內蒙古)에서 떠돌이 개들을 구하는 진단(金蛋) 씨의 노고에 대한 뉴스가 광범위하게 돌았다. 인터넷에 보도된 기사와 사진들은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이었으며, 동물의 권익을 염려하는 많은 자비로운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중국 동수들은 이 힘없는 동물들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아 개들을 구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버려진 개들이 진단 씨의 집에서 임시 거처를 얻다.

작년 8월 네이멍구 바오테우(包頭) 시가 동물 관리를 강화한 후로 버려지는 개들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개를 사랑하는 진단 씨는 오갈 데 없는 이 개들이 걱정되어 소리 없이 그 개들을 거두어 키우기 시작했다. 한번은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간혀 있는 몇 마리의 개를 보게 되었다. 털이 이리저리 엉킨 채 더럽고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던 개들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진단 씨를 쳐다보았다. 그는 경찰서 측에서도 당분간은 그 개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임시로 보살피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후로 경찰서에서는 등록이 안 된 개들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진단 씨의 개 보

호소로 보냈다. 처음 진단 씨는 ‘주인들이 개와 헤어져서 분명 마음 아파하고 있을 거야! 조만간 주인이 자기 개들을 찾아가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곳의 파출소와 시민들, 심지어는 개를 기르던 사람들이 보내는 개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기만 했고 개들을 입양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올해 6월까지 경찰서에서 보내 온 개만 해도 600마리가 넘었고, 그의 개장에 수용되어 있는 개들은 천 마리가 넘었다. 장소가 비좁아서 때로는 200마리



인터넷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개들을 위한 막사를 짓고 있는 진단 씨. 목재들도 이 친구들이 제공한 것이다.



이상의 개들이 10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장소에서 빼곡히 모여 살아야 했다. 그 결과 전염병도 생기고 약육강식의 상황도 벌어졌다.

이 개들을 돕고자 동수들은 모금과 입양 활동을 시작했다. 7월 어느 날, 지린 성(吉林省)과 랴오닝 성(遼寧省)의 동수들이 선양(瀋陽) 기차역에 줄을 서서 바오터우에서 오는 기차가 도착하길 기다렸다. 자신

들이 입양한 120마리의 개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속으로 오불을 외우며 사랑하는 강아지들을 위해 기도했다. 마침내 개들과 함께 도착한 진단 씨는 좀 우울해 보였다. 하지만 버려진 개들을 구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확



다소 엉성하긴 해도 나무 막사는 개들에게 비바람과 햇볕을 막아 주는 안식처가 되어 준다.



착한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사료.

고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동수들은 개들을 위해 음식과 물을 넉넉히 준비해 왔다. 잠깐 휴식을 취한 뒤 지린 성 장춘(長春)으로 가는 약 80마리의 개들은 다시 자동차로 여행을 계속했다. 그들이 도착하자 애타게 기다리던 동수들이 즉시 달려 나와 자식을 맞이하듯 개들을 반갑게 맞았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덕분에 30시간의 장거리 여행에도 이 어린 친구들은 여전히 발랄하고 귀여웠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이 아가들을 돌봐줄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동수들에게 입양되어 사랑 어린 환경 속에서 새 삶을 살게 된 개들.

8월에 다시 한 번 64마리의 개들이 장춘에 도착해 앞서와 마찬가지로 동수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번에는 진단 씨의 얼굴도 활기와 웃음이 넘쳤다. 알고 보니 스승님께서 어려운 처지의 이 동물 친구들을 염려하신 이후로 점차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었다. 현지의 불교협회와 천주교회에





마음씨 고운 진단 씨, 말은 많지 않지만 자신보다 개들을 더 사랑한다.

서도 앞다투어 각각 200마리, 100마리를 입양했고, 지역 주민들도 성금을 보내 주었다고 한다. 진단 씨는 “지금은 30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입양해 가면 17마리의 병든 개들만 남을 것 같습니다. 이 개들은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보살필 수 있으니, 더 이상 성금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동수들은 이 불우한 개들의 처지를 깊이 동정하여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입양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어느 개가 더 좋다느니 하며 고르지 않고 배분해 주는 대로 신이 주신 이 사랑스런 선물을 기쁘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중 다섯 마리의 작은 개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 동수들은 그들을 우리에 넣은 채로 집에 데려가야 했다. 동수들의 집에서 자애롭고 사랑에 찬 분위기를 느낀 개들은 결국 자발적으로 우리에서 나왔고 그에 따라 다시 한 번 따스한 보살핌과 행복을 맛보았다.

이번 일을 통해 스승님께서는 우리의 자비심을 키워 주셨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법도 알게 해주셨다. 이제 동수들은 서로 만나면 자기 집 개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주었는지 얘기하느라 바쁘다. 이 180마리의 귀염둥이들은 이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관음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동수들은 자신들이 구한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이 으레 생각하는 그냥 작은 동물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반려임을 잘 알고 있다. ☺

진단 씨의 개 구조 활동 기사를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club.life.sohu.com/r-pet-1646089-0-959-0.html> (중국어)





방글라데시

알라께서 천사를 보내 방글라데시의 구호 활동을 돕다

포모사 타오위안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남아시아는 우기를 맞아 날마다 호우가 쏟아져 엄청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거의 국토의 40%가 거대한 격류에 잠겼다. 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은 난민이 되어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재민들의 고통을 느끼신 자비로운 스승님께서서는 동수들에게 그곳에 가서 도움을 주라고 지시하셨다. 8월 1일, 스승님의 사랑 어린 지시를 받은 포모사 동수들은 즉시 구호 팀을 조직해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Dhaka)로 날아가 구호 활동에 착수했다.

8월 2일, 동수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번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전단을 번역하고 인쇄하는 일을 시작했고, 다른 한 팀은 지역 적신월사(Red Crescent Society)와 신속하게 접촉해 더 많은 재해 상황을 파악했다. 지역 적신월사 책임자는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시바라야(Shibalaya) 지역에 가서 조사해 보라고 권하면서 우리와 동행할 전문 위원을 보내 주었다. 저녁 7시경 시바라야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지역 공무원인 소네 맘카(Sone Mamkhah) 씨를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역을 알아보았다.

8월 3일 이른 아침, 동수들은 도매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 통역자는 자신의 매형이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구입해 개별 포장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심지어 우리를 인터뷰하러 온 『데일리 이떼파크(Daily Ittefaq)』의 기자 만난 초드리(Mannan Chowdhury) 씨까지 가격 흥정을 도와주고 물건의 가격과 품질 확인도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흥정을 마치고, 다음날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해 포장을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일을 마치는 데 일주일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는 8월 4일 하루 만에 모든 일을 끝내 800가구분의 구호 물품을 개별 포장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병원과 어린이에게 전해 줄 의료용품과 사탕, 비스킷, 장난감도 구입했다. 8월 4일, 『데일리 이떼파크』

의 기자 만난 초드리 씨는 우리의 인터뷰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재난을 입은 동포들을 도와주신 스승님께 감사를 표했다.

다음날인 8월 5일은 일찍부터 800꾸러미의 구호 물품을 두 부분으로 나눠 그 중 500꾸러미의 구호 물품과 의료품 절반을 직접 시바라야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적신월사 측에 부탁해 우리가 찾아가기 어려운 외진 곳에 구호 물자를 전해 달라고 했다.

지역 공무원과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 우리는 시바라야 5개 재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나눠 주었다. 세 번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일찍부터 물품 수령용 쿠폰을 들고 물 속에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능률적인 지역 공무원들이 우리가 구호 물자를 나눠 줄 것임을 알고선 서둘러 명부를 만들고 해당 가구마다 쿠폰을 발행했던 것이다. 그 덕분에 배분 활동이 원활히 끝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공무원들에게 정말 감동했으며 아울러 존경심이 일어났다. 다섯 번째 지역에서 구호 물자 꾸러미를 개봉한 한 수재민은 눈물을 흘리며 평생 이렇게 좋은 쌀은 먹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녀의 감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300꾸러미의 구호 물자를 일일이 확인해 수령한 적신월사의 샤피울 알람(Shafiul Alam) 씨는 스승님께 감사를 표하며 이재민에게 현재 꼭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말했다. 적신월사까지 구호 물자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투숙했던 호텔의 서비스 직원인 루키(Lukky) 씨의 도움 덕분이다. 그는 우리 구호 활동을 자발적으로 나서 온 힘을 기울여 도왔을뿐더러 어떤 보수도 정중히 사양했다. 오히려 그는 “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울 뿐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했다. 이런 긴박한 순간에 루키 씨의 그 숭고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깊이 감동시켰다.

8월 6일에는 아침 일찍 피해 상황이 심각한 시라지간지(Sirajganj) 지역으로 향해 또 다른 구호 활동을 펼쳤다. 가장 고무적이었던 일은 ‘데일리 이페팍’이 우리의 구호 활동 소식을 눈에 잘 띄는 신문 첫 면에 보도한 것이다. 그 결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재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데일리 이페팍’이 여러 차례 우리의 구호 활동을 보도하다.
(위) 구호 물품과 의료품을 이재민들에게 나눠 주고 있는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구호 팀.

(아래) 우리 협회 회원으로부터 구호 물품을 수령하는 시라지간지의 공무원 두랄 크리슈나 사하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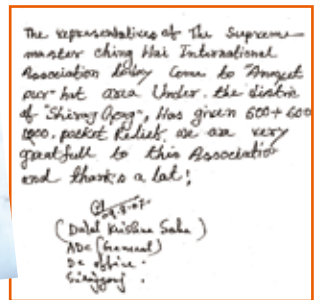
병원에 의료품을 기증하다.

8월 7일, 포모사에서 온 2차 구호 팀과 새로운 번역자가 도착한 후 우리는 다시 두 팀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한 팀은 시라지간지로 가서 지역 공무원인 두랄 크리슈나 사하(Dulal Krishna Saha) 씨를 만나 지역의 피해 정황을 파악했고, 다른 팀은 구호 물품을 구입해 개별 포장한 후 다음날 모든 물품을 차에 싣었다. 8월 9일, 우리는 차를 몰고 두 곳의 재해 지역을 방문해 600개의 구호 물자 꾸러미를 이재민들에게 순조롭게 배포했다.

적신월사 측에 전달한
구호 물품 수령 영수증.



시라지간지 이재민들의 감사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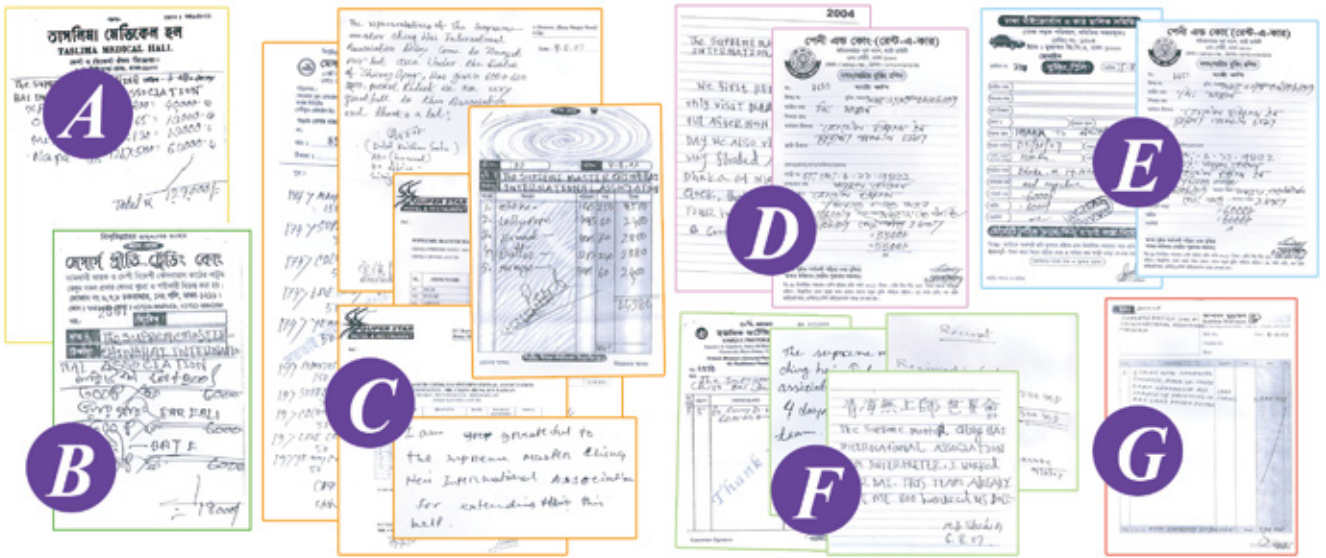


우리는 이번 구호 과정 중에 만난 모든 ‘살아 있는 성인들’에게 정말 감사했다. 그들 모두가 알려계서 보낸 천사였다. 그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 구호 활동이 매우 순탄하게 진행되어 수재민들의 긴급한 상황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첫 번째 구호 물자 배분을 마친 후, 소내 맘가 씨는 다른 구호 팀보다, 심지어 정부의 군대가 구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구호 팀을 이곳에 보내 모든 구호 물자 구입과 배포 작업을 신속하게 완수하도록 도와주신 스승님께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진심으로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시바라야 이재민들을 대신한 그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듣고 참으로 기쁘고 안심이 되었다. 스승님께서는 이재민들을 때 맞춰 돕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2차 구호 팀이 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있을 때 몇몇 다른 단체들도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선 매우 기뻐했다. 재난 상황이 심각하고 피해 지역에 구호 물자가 많이 부족한 만큼 다른 단체들이 구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면 이재민들의 고통도 훨씬 빨리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이재민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원래대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진심으로 기도했다.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방글라데시 수재민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방글라데시 타카)

구호 내역	금액	영수증
의약품(두통약, 감기약, 위장약)	129,000	A
어린이 장난감	18,000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쌀·렌즈콩·오트밀·비스킷·분유·황설탕) 기타 물품(음용수, 소독약, 설사약, 여성용 사리, 남성용 바지, 점화기) 트럭 임대비 	2,425,950	C1-C6
피해 지역 조사 교통비	11,500	D1-D2
구호 물자 배달 운송비	12,000	E1-E2
통역비	121,800	F1-F4
포스터 인쇄비	35,500	G
총계	2,753,750타카 (미화 40,318.45달러)	




페루

하푸루 지역 사회 학생들에게 겨울 용품 전달하기

페루르크 사저/ 페루 쿠스코(원문 스페인어)

황금시대 4년(2007년) 6월 23일, 페루 쿠스코 센터 동수들은 ‘하푸루 지역 사회(Hapuru Community)’의 학교에 다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옷을 전달했다.

하푸루 지역 사회가 매우 추운 안데스 산맥에 자리잡고 있어서 준비 작업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다. 사형사 저들은 이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따뜻한 옷과 생필품, 공책, 펜, 그 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했다. 6월 22일, 많은 동수들이 센터에 모여 옷을 연령별로 분류해 6개의 큰 포대에 담은 후 버스와 차로 15시간을 여행한 끝에 마침내 하푸루 지역에 도착했다. 우리가 학교에 도착하자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 학부모와 교장 선생님도 옆에 있었다. 그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신이 주신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했다. 아이들 모두 사탕을 먹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일을 마치자 마을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음식을 제공했고 아이들은 시와 흥겨운 춤을 선사했다.

이번 하푸루 여행은 모든 것이 신의 손 안에 있음을 상기시켜 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이런 멋진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국

이재민을 돕고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는 노력

중국 동수 종합 보도 (원문 중국어)

올 여름부터 중국 곳곳에서 일련의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산시(山西)·허난(河南)·후베이(湖北)·구이저우(貴州)·광둥(廣東)·안후이(安徽) 등지에서는 폭우로 인한 심각한 홍수로 피해를 당했고, 산둥(山東)과 지린(吉林)에는 보기 드문 폭풍이 강타했으며, 장시(江西)와 네이멍구(內蒙古)에서는 혹심한 가뭄을 겪었다. 재해 소식을 접한 중국 각지의 동수들은 재해 지역으로 달려가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 작업을 펼치고 스승님의 사랑을 전했다. 동수들은 이재민들을 돕는 한편 일반 대중들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가 증가하는 위기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랐다. 이제 이런 재난들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과 결심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이다!

산시

재난 구호에 대한 스승님의 지시를 받은 산시 동수들은 8월 초에 산시 샤(夏) 현의 홍수 피해 지역을 찾아갔다. 그곳 정부 관리들은 우리를 열렬히 반기며 우리를 도와줄 대표를 보내 주었다.

정부 관리들과 슈퍼마켓 주인의 도움 속에 우리는 밀가루·쌀·식용유·마른국수·채소·비스킷·분유·설탕·소금 등의 비상 생필품을 구입했다. 우리가 민간 자선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된 슈퍼마켓 주인은 원가에 물건을 판매했고, 일부 품목들은 무료로 제공해 주었다. 그날은 도로가 막힌 상태라 지역 행정관은 다음날 구호물품을 피해 지역에 전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파배기·비스킷·각설탕 등 비교적 덜 무거운 물품들만 포장해서 피해 지역에 직접 가져가기로 했다. 차로 두 시간을 달린 뒤 도로 상태가 너무 나빠서 도보로 산길을 두 시간가량 걸은 후에야 피해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구호 물품을 받은 이재민 중 어떤 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며 또 어떤 이재민은 우리 손을 꼭 잡고 감사를 표했고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신께 감사드렸다. ☺



여난

7월 말, 신양(信陽) 시 화이빈(淮賓) 현의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보낸 후(상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88호 참고) 동수들은 쑤먼샤(三門峽) 시 루스(盧氏) 현의 산간 지역에 백 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는 신속하게 민정국의 재난 구호소로 달려가 재난 상황과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식용유, 세제, 비누, 양초, 점화기, 소금, 간장, 식초 등의 구호 물자를 모두 구입했다. 이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피해 지역 두 곳에 가서 물자를 나눠 주었다.

동수들은 산에서는 밤이 되면 몹시 춥다는 것을 알고선 재빨리 다른 동수들에게 전화해 솜이불을 좀 구매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날, 우리는 트럭을 두 대 빌려 밤새도록 운전해 재난이 휩쓸고 간 이들 지역에 솜이불을 배달했다. 수재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빨리, 그것도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솜이불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뿔 듯이 기뻐했다. 그 마을 시장은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말했다. “딱 필요할 때 솜이불을 가져다주셨군요! 정말 때를 잘 맞춰 주셨습니다!” ☺



후베이

홍수 이재민 구호 활동



7월 28일, 후베이 성 윈시(鄭西) 현에 폭우로 인한 홍수로 가옥과 농지가 파괴되었다. 피해 지역으로 달려간 동수들은 많은 이재민들이 집을 잃고 고속도로 터널에 임시로 대피해 있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 우리는 서둘러 차를 되돌려 밤새도록 달려가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비상물품들을 구입했다. 오는 도중에 우리는 차 위에 아름다운 황금빛 구름이 맴도는 것을 보고 놀랐다. 마치 스승님의 화신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만 같았다. 동수들은 모두 무척 흥분했고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사랑과 축복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수재민들이 머무는 터널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이미 재난을 입지 않은 마을 주민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반가웠다. 수재민들은 우리가 가져온 구호 물자를 보고 기뻐하고 고마워했다.



이 밖에 단장커우(丹江口)의 투타이(土台) 향도 재해 상태가 심각해 무수한 흠집이 엄청난 산사태로 무너졌다. 지역 정부에서 미리 일부 이재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지만 그래도 97가구는 원조가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7가구에 전달할 구호 물자를 민정국 측에 위임했다.

우박 이재민 구호 작업

7월 30일, 동수들은 후베이 성 양신(陽新) 현의 한 마을이 우박을 맞았다는 소식을 신문 지상에서 접했다. 동수 한 명이 상태를 파악하고자 즉시 피해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8월 1일, 동수 일행이 양신 현에 도착해 집이 무너진 이재민들에게 위로금과 생필품을 제공하자 이재민들은 대단히 고마워하며 몇 번이나 감사를 표했다.



산사태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



이창(宜昌) 시 즈구이(秭歸) 현에 심각한 산사태와 진흙사태가 발생했다. 동수들은 민정국과 상의한 후 연합 구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8월 초에 우리는 쌀, 기름, 소금, 솜이불, 신발, 수건 등의 구호 물자를 준비해 피해 지역에서 신속하게 배포했다. 배포 과정에서 이재민들의 생활이 이미 많이 안정된 것을 알게 되어 기뻐했다. ☺

구이저우

구이저우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동수들은 각각 팀을 나누어 두윈(都勻)·쑤이(遵義)·런화이(仁懷) 시, 시핑(息烽)·다팡(大方) 현 등지에서 구호 활동을 펼쳤다. 두윈 시에서는 쌀과 국수, 다른 물품들을 극심한 피해를 입은 59가구와 일하지 못하는 독거 노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쑤이 시의 이재민에게는 두꺼운 솜이불과 쌀, 기름을 이재민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해가 심각한 가정에는 의연금도 전달했다. 지역 정부는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해 이재민들을 돕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직접 집을 신고 내리고 아무런



광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일하며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구호물자를 최상품으로만 공급하는 우리 같은 자선 단체나 개인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런화이 시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했다. 다행히 민정국의 도움으로 이재민들은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다음으로 필요한 일은 집을 다시 짓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민들에게 구호금을 전달하며 이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복구하길 희망했다.

시핑 현에서는 세 곳을 기점으로 해서 의연금과 쌀, 식용유를 511개 이재민 가구에 분배했다.

다팡 현의 수재민들도 비슷한 처지로, 집이 무너지고 농작물이 홍수에 잠겨 있었다. 지방 정부는 수재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못하면 다음 재난이 강타했을 때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후 다음날 우리는 이재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돕고자 구호금을 전달했다. ☺



광둥

8월 11일, 태풍 파북(Pabuk)의 영향으로 광둥 성 잔장(湛江) 시의 쑤이시(遂溪)·레이저우(雷州) 지역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 동수들은 쌀, 광천수, 비스킷, 국수, 돛자리, 수건 등의 비상 물자를 구입해 여러 피해 지역으로 달려가 구호 작업을 펼쳤다. 배포 작업을 하면서 수재민들에게 최근 상황과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혹시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부의 구호 작업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레이저우 시의 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재해 상태가 매우 심각해 어떤 집들은 완전히 휩쓸려 내려갔고 농지는 홍수에 잠겨 깊은 협곡이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수재민을 위해 쌀과 식용유, 솜이불을 구입했는데, 이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다리가 홍수로 끊어진 상태라서 마을 촌장이 주민들을 시켜 강을 건너 구호 물품을 받아 가게 했다. ☹



안후이

올해 안후이 지방에는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 불어나는 화이허(淮河)의 강물로 그 유역이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스승님의 자비로운 지시로 동수들은 앞서 두 차례의 구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뉴스잡지 187호, 188호 참고)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다 많은 이재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동수들은 연일 계속된 활동으로 인한 피로도 잊은 채 계속해서 대량의 구호 물자를 구입하고 타는 듯한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세 번째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8월 초 네 번째 구호 활동 과정에서 많은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쌀 2,100kg과 콩기름 1,300kg 등 시급한 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트럭을 빌리려고 하고 있을 때, 몇몇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과 친절에 감동했다면서 트랙터 세 대와 트럭 한 대를 무료로 제공해 주었다. 마을까지는 아직 수백 미터가 남아 있는 곳에서, 빨간 종이에 “어려운 순간의 시기 적절한 도움이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다!”라고 쓰인 환영 표어가 사방에 붙어 있는 것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멀리까지 마중을 나와 폭죽을 터트리며 환영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품 내리는 것을 열심히 도와준 뒤 질서 정연하게 자기 몫을 받아 갔다.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고마움을 표했다. 어떤 이는 우리에게 샘물과 땀을 닦기 위한 깨끗한 수건을 주었고, 멀리까지 가서 비싼 음료수를 사다가 대접하기까지 했다. 더 감동적이었던 일은 부녀자들이 동수들 뒤에 조용히 서서 더위를 식히도록 부채질을 해 주었던 것이다. 우리가 떠날 때도 이들은 다시 폭죽을 터뜨리며 환송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했다. 이 모든 모습에서 그들이 매우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들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 번째 구호 활동은 서우(壽) 현의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현지 공무원과

주민들의 도움으로 5,000kg의 쌀과 1,600kg의 콩기름, 3,500자루의 장아찌가 눈 깜짝 할 사이에 내려졌다. 그때 갑자기 큰비가 쏟아졌다. 현장에 있던 젊은 촌장은 감격해하며 말했다. “이건 빗방울이 아니에요! 신의 눈물입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셔서 신이 감동하신 거예요. 신이 여러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사랑은 우주 최고의 언어이다. 동수들과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의 사랑을 주고받았을 때 사랑의 힘은 몇 배로 커졌다. ☯



산동

8월 초, 산동 성 린이(臨沂) 지역의 많은 향과 마을이 강풍에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여러 마을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동수들은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운전해서 재해 지역에 도착했다. 적극적인 마을 회계의 지도 하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방문해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호금을 전달했다.

또 다른 한 팀은 린이 재해 지역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추천해 준 형편이 어려운 세 가정을 방문했다. 이들 세대



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노인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호 기금을 건네는 한편 그들을 위해 말없이 기도해 주었다. ☯

지린

8월 8일, 지린 성 이통만족(伊通滿族) 자치현에 예기치 못한 폭풍이 불어닥쳤다. 소식을 접한 동수들은 즉시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안고 그곳으로 향해 각 세대들을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 자재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동수들은 이틀 만에, 156채를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를 각 가정에 보냈다.

피해가 극심하고 인력과 돈이 부족한 가정에는 구호금을 추가로 전달했으며, 이재민들에게 많은 상자의 옷도 기부했다. 우리가 모든 마을의 피해가 큰 가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기는 모습에 주민들은 크게 감동했다. ☯



장시

올 여름, 장시는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 곤경에 처했다. 스승님과 동수들의 사랑을 가득 실은 버스가 6시간의 여행 끝에 간저우(贛州) 시에 도착했다. 우리가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과 더불어 우유와 마실 물, 일사병 예방약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자 그들은 햇살과 같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구호 활동을 하러 가는 도중 우리 버스가 지나가는 곳마다 큰비가 뒤따라서 오랫동안 비 구경을 못했던 땅을 축축히 적셨다. ☯



네이멍구

올해 네이멍구 퉁랴오(通遼) 시 자루터치(紫魯特旗) 북동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곡물 수확이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는 이미 양식이 바닥나 외상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다. 동수들은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을 찾아 쌀, 밀가루, 식물성 기름, 신선한 채소, 옷 등의 구호 물자를 도움이 가장 필요한 가정에 나눠 주었다. 물자를 받은 사람들은 크게 감동했다. 한 시골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금도 아직 이렇게 마음 착한 사람들이 있나요?” ☺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인도주의의 구호 활동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humanitarian>

(연도, 국가/지역, 사건별 검색 가능)

내 차는 풀서비스만 받아오

칭하이 무상사/ 2003. 2. 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5

젊은 아가씨가 시동이 꺼진 차에 앉아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남자 두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지요. “연료가 다 떨어졌는데 주유소까지 좀 밀어주시겠어요?” 그녀가 사랑거리며 말하자 그들은 흔쾌히 몇 블록 떨어진 곳까지 차를 밀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지친 한 사람이 고개를 들어 봤다가 주유소를 막 지나친 것을 알고선 소리쳤어요. “어째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녀도 큰소리로 맞받아쳤지요. “거긴 안 갈 거예요. 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



인도네시아

귀여운 아기 거북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발리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해마다 4월부터 9월까지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많은 암거북이들이 안전하게 산란할 수 있는 발리 섬 쟌브라나(Jembrana)의 페란착(Perancak) 해변으로 옮겨 온다. ‘쿠르마 아시(Kurma Asih, 거북이 사랑)’라는 한 단체는 이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보호한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거북이들은 임시 보호소에 있다가 입양되어 양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후 바다로 방생된다. 사실 이 사려 깊은 단체 회원들은 전에 거북이 사냥꾼이었으나 지금은 고귀한 목적 의식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고 거북이들을 구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동수들은 이들의 활동을 돕고자 금전적 기부를 하는 한편 아이들이 거북이에 대해 배우고 사랑하도록 교육시켰다.

황금시대 4년(2007년) 6월 13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인도네시아 센터 동수들은 이 단체에서 42개의 새끼 거북이 동우리를 입양했다. 이는 지난 10년 새 가장 큰 입양이었다. 동수들은 말했다. “이 거북이들을 방생하기 전에 모든 사형사저들은 이들이 아무 위험도 겪지 않고 크고 씩씩하게 자라길 기도했습니다. 이 귀여운 새끼 거북이들이 천천히 파도에 이끌려가면서 팔을 움직이는 걸 봤는데 마치 자기 양부모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말했다. “안녕, 동생들아. 열심히 잘 살아! 강해지렴. 스승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쿠르마 아시’ 측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모습.

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늘 연결될 수 있겠지요.” 이 단체의 한 고참 회원은 보다 많은 지역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스승님의 책을 한 질 더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떠나기 전 우리는 그곳의 모든 쓰레기를 주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새끼 거북이들을 넓디넓은 대해로 보낸 황홀한 느낌에 감격스러웠다. 스승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이 작은 행동이 온 세상에 이로움을 가져다주길 바란다. ☺

거북이 방생 의식을 마친 후 동수들은 ‘쿠르마 아시’ 단체 회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나눠 주었다. 모두들 견본책자를 주의 깊게 읽었으며 우리가 준비한 채식 식사도 즐겁게 먹었다. ‘쿠르마 아시’의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은 느낌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큰 감사를 전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과 ‘쿠르마 아시’에서 활동하는 현지 주민들.

투게가라오 대교구에 보낸 사랑의 선물

(원문 영어)

칭하이 무상사의 온정 넘치는 관대한 마음씨는 세상 많은 이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만족시키고 있다.

황금시대 4년(2007년) 초에 스승님은 투게가라오(Tuguegarao)의 75세 된 디오스다도 탈라마얀(Diosdado A. Talamayan) 대주교가 5월 10일에 보낸 감사 편지를 받으셨다. 대주교는 스승님께서 은퇴한 주교와 신부들을 위해 필리핀 가톨릭 주교단에 미화 15,000달러를 기부해 주신 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내용 전문은 뉴스잡지 185호 참고) 이 편지를 읽고 그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아신 스승님은 다시 은퇴한 성직자들에게 가외로 필요한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추가로 미화 20,000달러를 보내도록 지시 하셨다.

투게가라오 대주교는 이 소식을 듣고 뿔 듯이 기뻐했다. ‘퇴직 주교와 신부의 집’이라는 새로운 건물 공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 계획이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참에 스승님의 후원과 관심이 때 맞춰 도착했기 때문이다.

탈라마얀 대주교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의 서신을 통해 무상사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는 6월 22일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이제 당신은 우리가 언제나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진실로 신의 사랑과 관용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 특히 은퇴한 노신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크게 흘러들어 갈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 준 이러한 선행에 대해 그저 경의를 표할 따름입니다. 신께서 계속해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선행을 몇 배로 보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



칭하이 무상사의 ‘은퇴한 주교와 신부의 집’을 위한 미화 2만 달러 기부에 대한 감사 편지와 영수증.



은퇴한 노신부들을 위해 건설 중인 새 건물 앞에서 있는 투게가라오 대교구의 디오스다도 탈라마얀 대주교.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또는 폭넓게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아프리카 ■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 베냉:
코토노우/ Mr. Yedjenou Georges/ 229-93076861/ smchwisdom@gmail.com
코토노우/ Mr. Yedjenou Sylvestre/ 229-21380404/ yedsylves@gmail.com
코토노우/ Mrs. Hounwanou Sessito Lucie/ luxe21@yahoo.ca
포르토노보/ Mr. Hounhou Mahougbe Didier/ 229-90-93-29-99/ smptonovo@yahoo.fr
- ★ 부르키나파소: Ouagadougou/ Mr.YAMEOGO Honore/ 226-70-62-34-58/ honoreyam@yahoo.fr
- ★ 카메룬:
두알라/ Mr. Daniel Xie/ 237-3-3437232/ smcameroon@gmail.com
두알라/ Mr. Thomas KWABILA/ 237-99-15-05-73/ thomaskwa@yahoo.fr
두알라/ Mr. BIANE Alain Frederic AHMADOU/ 237-99-86-50-26/ alainbiane@yahoo.fr
- ★ 콩고민주공화국:
킨사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킨사사/ Mr. Hung Lui-Liang/ 243-81361939/ blessedcongo@yahoo.fr
킨사사/ Mr. Mbau Ndombe Abraham/ 243-811433473
- ★ 가나:
아크라/ Mr. Amuzu Kwei Samuel/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아크라/ Mr. Emmanuel Koomson/ 233-244170-230
- ★ 케냐: Mr. Chin Szu Yao/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razahidah@hotmail.com
-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lius@intnet.mu
- ★ 나이지리아:
예냐고아/ Ms. Harry Juliana/ 234-8032365567/ 234-805-802/ 8206brayila@yahoo.com
- ★ 콩고공화국:
브라자빌/ 센터/ 242-5694029, 242-5791640/ goldenagecongo@yahoo.fr
-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76742-5040/ emzinikababa@yahoo.com
- ★ 토고:
팔리메/ Mr. Dossouvi Koffi/ 228-905-42-76/ jdossouvi@yahoo.fr
팔리메/ Mr. Late Komi Mensa/ 228-441-09-48/ smkpalimetogo@gmail.com
로메/ Mr. GBERNYON Kuakui Kouakou/ 228-902-72-07/ kgbenyon@yahoo.fr
로메/ Mr. GERALDO Misbaou/ 228-022-78-44/ mmylg@yahoo.fr
-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264-9807/ semazima@yahoo.com

■ 아메리카 ■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acasa25@yahoo.com.ar
-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3-4625964
- ★ 브라질:

- 벨렘/ Ms. Cleci de Brito Neves/ 55-9188019288/ Contato.belem@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l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 캐나다:
에드먼튼/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l@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센터/ ottawacentre@gmail.com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p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17-0946/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yahoo.com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gmail.com
-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501@hotmail.com
-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mexicali.center@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6673-2220/ mrleone2@yahoo.com
-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le Cespedes Gimenez/ 595-981-836314/ emille_cespedes@hotmail.com
시우다드델에스테/ Mr. and Mrs. Italo Acosta/ 595-578571, 595-983614592/ italoacostaa@hotmail.com
-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gmail.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ontact@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3565176/ teresita41@hotmail.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1-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gu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Ms. Dianela Carola Diaz Ferreira/ 58-4168605497/ daniel33@yahoo.es
★ 미국: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애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christophers2@cox.net
§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lw31@yahoo.com
새크라멘토/ Mr. Thi Thai Le/ 916-799-7768/ thaivegi@yahoo.com
새크라멘토/ Mr. Tuan Minh Le/ 1-916-226-9197/tuanins@yahoo.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lcenter@hotmail.com
새너제이/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ico@yahoo.com
새너제이/ Mr. Jingwu Zhang/ 1-408-505-5824/ jingwuzhang@hotmail.com
새너제이/ Ms. Mai Thanh Phan/ 1-408-603-5037/ smthanhmai@yahoo.com
§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ai@gmail.com
§ 플로리다:
잭슨빌/ Mr. David Tran/ 1-904-285-0265/ jax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올랜드/ Mr. Johnny Scott-Meza/ 1-407-529-7829/ scottmezaJohnny@yahoo.com
§ 조지아:
센터/ georgiacenter@hotmail.com
Mr. Roddell Pleasants/ 1-678-429-7958
Ms. Kim Dung Thi Nguyen/ 1-404-422-1431
§ 하와이: Mr. Neil Trong Phan/ 1-808-398-4693/ neilphan@gmai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initz/ 1-317-842-8119/ josiepoep@sbcglobal.net
§ كنت키: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l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실버 스프링/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볼티모어/ Mr. Pete Theodoropoulos/ 1-410-667-4428/ petetheo1111@hotmail.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842-0262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mst.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Mr. Hero Zhou/ 1-973-960-6248/ yb_zhou@hotmail.com
Ms. Lynn McGee/ 1-973-864-7633/ lynn.mcgee@yahoo.com
Ms. Bozena Chetnik/ 1-973-896-8659/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Mr. Fred Lawing/ 1-704-614-4397/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크하이오: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크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931-4699/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사우스캐롤라이나: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474-3492/
smch_southcarolina@yahoo.com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i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ngdean@yahoo.com
댈러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댈러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tx.rr.com
댈러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댈러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2321@att.net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comcast.net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an888@comcast.net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워싱턴 DC/ 센터/ 1-703-997-1622/ VA_Center@yahoo.com
버지니아/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y@hotmail.com
버지니아버치/ Le Thanh Liem/ 1-757-461-5531/ qytek@yahoo.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o@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Gin/ 886-37-221618
미아오리/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ii.com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co.id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말랑/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it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harry_l@sby.dnet.net.id
 욕야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62-274-650-7704/ yogyakartawisdom@yahoo.com

★ 이스라엘:
 텔아비브/ Mrs. Talya Tal/ 972-50-8511720/ tal.talya@gmail.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h.biglobe.ne.jp
 도쿄/ Mrs. Hyakutake Toshiko/ 81-90-4923-1199/ binta@k7.dion.ne.jp
 도쿄/ Mrs. Yoshii Masae/ 81-90-6542-6922/ smchflute@gmail.com
 도쿄/ Mrs. Sato Rie/ 81-80-5654-1688/ riesato302@yahoo.co.jp
 오사카/ 센터/ smchtoosaka@gmail.com
 오사카/ Mr. Le Khac Duong/ 81-90-6064-7469/ leduongjp@yahoo.com
 나고야/ 센터/ 81-90-3447-3117/ yumiko-emi@hotmail.co.jp

★ 요르단/ Mr. Jafar Marwan Irshaidat/ 962-7-9511993/ estaphuam@hotmail.com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l@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1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조영원/ 011-9670-5839/ seoulyoungwon@yahoo.co.kr
 서울/ 강진태/ 011-263-3563/
 서울/ 류경남/ 011-715-7693/
 부산/ 센터/ 051-334-9205/ chinghaibusan@gmail.com
 부산/ 송호준/ 010-3599-4552/ shj92324@hanmail.net
 부산/ 황상원/ 051-805-7283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김익현/ 010-3804-5048/ freely3456@yahoo.co.kr
 대구/ 한선희/ 010-3034-5232/ sunny5338@hanmail.net
 대구/ 차재현/ 010-4656-0733/ edwadcha@yahoo.co.kr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jeon@yahoo.co.kr
 대전/ 도봉희/ 016-857-5547/ dbhs44463@yahoo.co.kr
 대전/ 김선재/ 042-581-3718, 017-425-2390
 전주/ 최병선/ 011-9715-9394/ buda1996@hanmail.net
 광주/ 센터/ 062-525-7607
 광주/ 조명대/ 061-394-6552/ smgwangu@naver.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인천/ 이재문/ 032-244-1250
 안동/ 센터/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안동/ 김삼태/ 010-3929-1859
 울산/ 유한주/ 010-5298-6625/ gkswn6625@hanmail.net
 원주/ 정광훈/ 019-369-2509/ tunnychong@hanmail.net
 원주/ 김진숙/ 010-5183-2509/ chinskim@hanmail.net
 청옥/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souk/ 856-21-415-262/ somboon_9@hotmail.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28532231/ mcdi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28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oldpiong@streamyx.com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klsmch@yahoo.com
 쿠알라룸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3002/ ki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streamyx.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울란바토르/ Ms. Bolormaa Avirmed/ 976-11-341222/ bolor_suvd@yahoo.com
 울란바토르/ Mr. Bayarbat Rentsendorj/ 976-99774277/ quanyin_mongolia@yahoo.com
 코롤/ Mr. Chinsukh Uuter/ 976-99110446/ khololcenter@yahoo.com
 코롤/ Ms. Tsenddorj Tserendorj/ 976-99370917/ tsendee_hutul@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iakss@mptmail.net.mm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75-6609/ philloveocean.mn@gmail.com
 마닐라/ Ms. Kim Thuy Bich Chau/ 63-917-258-7642/ chauthuykim@yahoo.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ence Fernando/ 94-11-2412115/ smchnirvana@gmail.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ck6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bkctcp@gmail.com
 방콕/ Mr. Chusak Osonprasop/ 66-081-4816500/ mummykat@hotmail.com
 방콕/ Mrs. Ratchanan Jintana/ 66-081-7515227/ bkckpcr@gmail.com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0-332136/ siriwanyl@gmail.com
 콘캔/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Mr. Dhiraj D. Radadiya/ 971-50-3118499/ dradadiya@yahoo.com
 두바이/ Mr. Mahesh Shah/ 971-50-4503514/ map_shah@yahoo.com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64-9953748/ qyaustria@googlemail.com
 비엔나/ 연락인 사무실/ 43-650-8420794/ ngocdany@yahoo.com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s.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laykov/ 359-2-8575358/ quanyinsolia@gmail.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98-9706788/ zeljstar@inet.hr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프라하/ Mr. Nguyen Tuan Dung/ 420-608124709/ czech-center@spojenisbohem.cz

★ 덴마크:
 오덴스/ Mr. Thanh Nguyen/ 45-66-190459/ ductam@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Astrid Murumagi/ 358-50-596-2315/ helsinkicenter@yahoo.com

헬싱키/ Mr. Tri Dung Tran/ 358-40-7542586

★ 프랑스:

알사스/ 센터/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lumieretson@gmail.com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몽펠리에/ Mr. Sylvestrone Thomas/ 33-4-67650093/ ocean-amour@wanadoo.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Mr. Grigori Guinzbourg/ 49-30-5498-6147/ Grigori.Guinzboung@gmx.de

베를린/ Ms. Hoa Thi Hoang/ 49-30-3083-4712/ Pureocean@web.de

뒤스부르크/ Mr. Velthen, Michael/ 49-174-5265242/ dusseldorfcenter@hotmail.com

뒤스부르크/ Ms. Tran, Thi Hong Mai/ 49-2162-8907108/ mai_tran70@yahoo.de

프라이부르크/ Ms. Elizabeth Muller/ 49-7634-2566/ elmueart@surfeu.de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원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원헨/ Mr. Nguyen, Thanh Ha/ 49-89-353098/ ha_nguyensm@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vicky.chrisikou@g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부다페스트/ Mrs. Aurelia Haprai/ 36-20-2400259/ doraurea@gmail.com

★ 아이슬란드: Ms. Nguyen Thi Lien/ 354-5811962/ reyjkjavik_center@yahoo.com

★ 이탈리아:

페스카라/ Mrs.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캄포바소/ Mr. Francesca Spensieri/ 39-333-722-5527/ tancy_lalla@yahoo.it

볼로냐/ Mrs. Nancy Dong Giacomozzi/ 39-320-341-0380/ QuanYinBologna@gmail.com

★ 아일랜드:

더블린/ Mrs. Hsu, Hua-Chin/ 353-1-4865852/ smch_dublin@yahoo.co.uk

더블린/ Ms. Kathleen Hogan/ 353-87-2259619/ dublinquanyin@gmail.com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ginka_5@yahoo.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알코바카/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jvcaldeira@clix.pt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9104659738/ moscowcenter@rambler.ru

모스크바/ Mr. Oleg Dmitriev/ 79165763796/ moscowcenter@mail.ru

★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Ms. Maja Mijatovic/ 381642748820/ majazemun@yahoo.com

★ 슬로바키아:

질리나/ Mr. Roman Sulovec/ 421-903100216/ roman.sulovec@spojeniesbohrom.sk

★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류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torevershinlove@gmail.com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 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말라가/ Mr. Joaquin Jose Pretel Lopez/ 34-667090831/ jopreto@hotmail.com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s. Wenqin Zhu/ 34-96-3301778, 34-695953889/ valenciachinghai@yahoo.es

발렌시아/ Mr. Jose Luis Ordena Huertas/ 34-653941617/ joselorduna@gmail.com

★ 스웨덴:

앵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den@gmail.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3-38097, 46-70-6219906/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lengli@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rsula_klein@bluewin.ch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hotmail.com

암스테르담/ Mr. Roy Mannaart/ 31-653388671/ r.mannaart@planet.nl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임스위치/ Mr. Zamir Elahi/ 44-7843-352919/ zamir.light@g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londonukcentre@googlemail.com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런던/ Mr. Danny Ejayese/ 44-7949798310/ danny_zen@yahoo.co.uk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isshop/ 61-7-3901-7038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gmail.com

캔버라/ Ms. Jayita Belcourt/ 61-4-0976-1005/ jayita@amrita.com.au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n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khhor@netspace.net.au

미드 노스 코스트/ Mr. Eino Laidsaar/ 61-2-6550-4455/ goldenagecenter@gmail.com

노던 리버스/ 바이런 베이/ Mr. and Mrs. Jonathan Swan/ 61-2-6624-7209/

byronbaycentre @gmail.com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시드니/ Mrs. Kathy Divine/ 61-2-9891-5609/ universalove22@yahoo.com.au

태즈메이니아/ Mr. Raymond Dixon/ 61-3-62233118/ ray_dixon@bigpond.com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934/ hamnzcont@yahoo.co.nz

넵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이 인류에게 주는 일깨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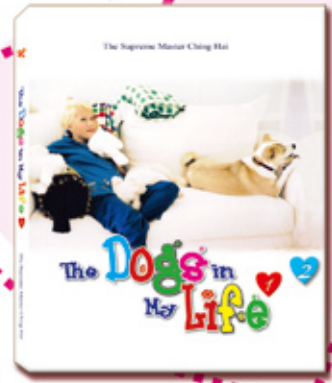
천쿤 동수/ 미국 뉴저지 (원문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의 저서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을 읽기 전, 나는 스승님께서 심오한 지혜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셨는지 궁금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미 개를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 수록된 모든 일화들은 오갈 데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과 동물들을 염려하는 깨달은 스승의 결코 범상치 않은 자비심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발간한 진짜 의도는 아닌 듯했다. 그렇다면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좀더 읽어 보니 그에 대한 답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개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독자들이 조금이나마 엿보고, 또한 그들을 통해 다른 존재들에 대해 좀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나는 이 책이 영적인 철학을 전하고 모든 존재들 간의 관계를 다룰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개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은 같은 곳에서 오지 않았을까? 인간은 영성과 감정 면에서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사실 개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이다. 그렇지만 나는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이 개들의 다양한 감정 표현 능력에 눈길을 빼앗겼다. 그들은 때로는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듯 슬퍼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어디 먼 곳이라도 가 있는 듯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내면을 응시하는 듯하고 때로는 외부 주변 환경을 응시하는 듯하다.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단호하고 용감하기도 하며,



평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곧 눈물을 터뜨리기도 할 것 같고 때로는 기쁨에 겨워하며, 때로는 상냥하게 미소 짓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그들 삶의 순간 순간을 담은 사진 속에는 그들의 깊은 내적 감정들이 잔잔히 흐르고 있어 그들의 영혼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창이 되어 준다. 이토록 명확한 사실을 어째서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 책을 읽은 뒤 나는 마치 미지의 신대륙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개들이 이토록 심오한 감정과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인간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싶어할 뿐 아니라 진실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되돌려 줄 줄도 안다. 책 서문에서 스승님은 “모든 존재들이 우리와 같습니다.”라고 하셨다. 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제물편(齊物篇)>에서 “천지가 나와 함께 생기고 만물이 나와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을 안 지 수년이 되었다. 하지만 정말 체험하기 쉽지 않은 이것을 스승님의 책을 읽은 후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다. 인간과 개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영혼의 본질이 같다는 점이다. 진실로, “우리는 그에 걸맞은 존중과 평화, 사랑을 베풀어 그들의 좋은 동거인이 되어야 마땅”하며, “우리가 바라는 삶과 똑같이 그들 또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소중히 돌봐져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와 동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뀔 때가 되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의 경우, 사람을 해치고 잡아먹기도 하므로 인간은 그런 동물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두려운 느낌을 갖는다. 사자나 호랑이의 날카로운 발톱에

불잡힌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라. 두렵게 느껴진다면, 어째서

인간은 자신들이 다른 존재를 해치고 그들의 살점을 씹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며, 어째서 그들이 그 고통스런 운명을 받아들이어야만 한다고 믿는 것인가? 이제 깨어나야 할 때다. 예수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마태복음 7장 12절).”라고 말씀하셨다. 공자 또한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그들의 뜻은 똑같다. 동물을 대하는 데에도 이 가르침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 CG16 (중국어)

업장은 어디로 가는가

1989. 1. 1. 포모사 시후 센터 단체명상

주요 내용:

식사한 뒤 바로 명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깨달은 스승은 중생의 업장을 짊어지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는가? 업장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왜 중생들은 세세생생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며 해탈하지 못하는가? 깨달은 스승은 서로 다른 요구와 능

력을 가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어떻게 서로 다른 방법들을 쓰시는가? 동수들의 개인적 체험과, 업장에 대한 스승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길. ☺



CD E753 (영어)

만물에 대한 사랑

2002. 9. 1./ 9. 7. 미국 인디애나 센터/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와의 화상회의

주요 내용:

스승님께서서는 애완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얘기하시며 동물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인간과 똑같이 감정과 지능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정신적·감정적 요구와 영적 진보에 대한 요구를 존중해 줘야 한다.

스승님께서서는 질병을 최소화시키는 간단한 '네 가지 건강 지침'을 알려 주시는 한편 두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명상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해결책도 제시하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와 함께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을 상냥하게 안심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부드럽고 단호한 방법들을 제안하십니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DVD 729 (영어+21개 국어 자막)

위대함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

2001. 4. 18./ 4. 21./ 4. 25.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주요 내용:

스승님에겐 많은 꿈과 열망이 있지만, 그와 같은 숭고한 이상을 가진 이는 많지 않다. 스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신다. “우리가 자신의 이상을 굳건히 유지한다면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위대한 이들이 위대해진 방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상과 본래 목표, 포부를 확고하게 밀고 나감으로써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전념한다면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



DVD 774 (중국어+25개 국어 자막)

긍정적인 사고로 세계 평화를 이끌자

2006. 11. 25. ~ 29. 태국 파타야 세계 평화를 위한 명상

주요 내용:

예로부터 선조들은 수없이 많은 지혜를 남겼지만, 그것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라면 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닮을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이다. 성경에서는 “먼저 신의 왕국을 찾으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라고 했고 석가모니불도 “불성을 찾고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불은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깨달은 후에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깨닫고 나면 다스리는 방식이 달라진다. 우리는 지혜로, 침착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우리의 불성으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무력이나 정치, 법 같은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면 전능한 축복의 힘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애쓰지 않아도 평화와 공덕을 가져올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속도는 차츰 빨라지고 있다. ㉡

